

역대 本草書의 본초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¹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學科 韓醫務碩士過程 大學院生

²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人文社會醫學教室 助教授

白明勳¹ · 辛相元^{2*}

A Study on the Bencao Classification System in Materia Medica of East Asian Medical History

Baek Myunghun¹ · Shin Sang-won^{2*}

¹Graduate Student at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Humanities &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diachronically examine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all materia medica, followed by categorization and analysis of each category to deduce each category's characteristic. This will provide foundation for further examining classifications of bencao in contemporary herbology.

Methods : Classification systems from a total of 93 bencao related texts were collected and categorized. Each category's classification system was analyzed to determine its meaning. The classification systems were compared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o further deduce each system's problem from a historical context.

Results :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materia medica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ree standards: quality, origin, and medical application. In reality, bencao could be generally classified according to origin and medical application. The origin-based classification system provided a stable and flexible classification outline in the expansion process of bencao. The medical application-based classification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ncao and illness pattern, improving clinical applicability.

Conclusions : In the history of herbology, the two classification systems created the current of herbology through mutual contribution and conflict. We hope that further discussion on the direction towards which classification system of bencao in contemporary herbology should head will proceed based on this study.

Key words : materia medica(本草書), bencao classification(本草分類), quality-basedclassification system(三品分類體系), origin-based classification system, medical classification system

* Corresponding Author : Shin Sang-won.

Dept. of Humanities &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ungsangnam-do, 50612, Republic of Korea.

Tel : +82-51-510-8452, E-mail : shinsangwon@pusan.ac.kr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August 11, 2023), Revised(August 14, 2023), Accepted(August 14, 2023)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현재 본초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류체계는 현대 본초학의 가장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로 여겨진다. 이 분류체계는 충분히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어서 현대에 한의학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분류를 따라 본초를 학습하고 이해하며 임상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본초의 약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다보면 우리는 본초분류체계 안에서 그 본초가 속한 분류의 특성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약성과 효능을 발견하게 되며, 이에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본초에 대한 분류체계는 하나로 충분한가?

‘분류’란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는 속성,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나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분류자는 자신의 목적이나 관심에 따라 사물의 비교 대상을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의 결과에 따라 관찰되는 속성이 달라지고 거기에 붙여지는 이름도 달라진다. 요컨대 ‘분류’의 결과는 분류자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군의 사물에 대한 분류는 사물에 대해 투영되는 목적 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본초에 대한 분류도 하나일 리 없다. 만약 우리가 본초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분류체계를 수집하고 그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하나의 본초에 대해 투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목적과 관심에 대해 각성하게 된다면 본초의 특성을 이해하는 폭이 비약적으로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현대에 주로 사용되는 본초분류체계가 충분히 근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그 밖의 시선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의 시선 안에 갇히게 되어 시야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더라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본초에 접근하는 여러 분류체계를 폭넓게 수집하고, 그 안에 내재된 문제의식을 읽어내어 본초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해 각성하고자 한다. 만약 이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면 현대에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본

초분류체계에 대해 다층적으로 비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나아가 본초의 임상적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안적 분류체계를 모색해 볼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선행연구로는 冉小攀(1958)¹⁾, 趙建一(2007)²⁾, Jang 등(2008)³⁾, 宋詠梅(2009)⁴⁾, 李保傑 등(2009)⁵⁾, 朱姝 등(2012)⁶⁾의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하는 연구는 Jang 등의 연구인데,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연구로서 기존 본초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본초학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머지 연구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본초서의 목차에 나타난 주 분류방식의 분류체계, 그리고 주분류방식 이외의 보완적인 분류방식을 모두 수집하여 가능한 한 많은 시선들을 모아 분석하고자 한다.

II. 本論

1. 연구방법

1) 역대 본초서 속 본초분류 체계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역대 본초서에 적용된 본초분류를

- 1) 冉小攀. 我國古代本草的編纂和藥物分類方法的發展(一). 中藥通報. 1958. 4(1).
- 2)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 3) 이 연구는 효능[efficacy]별 분류체계의 연원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는데, 심체설을 그 이론적 연원으로 간주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본초학보다 한 발 앞서 효능 분류를 시도한 처방서인 汪昂의 『의방집해』(1682)가 현대 본초학 효능 분류의 기원이 된다고 하였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 4)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 5) 李保傑, 柴清軍. 中藥的分類探討.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09. 7(4).
- 6) 朱姝, 王玉芳. 論歷代本草著作之中西藥分類方法.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2. 14(10).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초서 속 본초분류는 우선 각 본초서의 ‘目錄’ 또는 ‘目次’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적용된 본초분류를 수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당 본초서의 ‘주분류방식’으로 칭하기로 하였다. 본초서에 따라 ‘주분류방식’과 특성을 달리하는 또다른 본초분류 방식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본초분류방식도 수집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보완분류방식’으로 칭하기로 하였다.

‘보완분류방식’의 경우 ‘目錄’ 내에 병렬적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고 본초 각론의 전후에 독립적인 篇章의 형식으로 붙인 경우도 있는데, 전체 본초 목록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하나의 본초분류 방식으로 간주하기에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다양한 분류 방식을 폭넓게 수집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고,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본초를 분류한 내용이라면 최대한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본초분류를 탐색하기 위한 본초서의 범위도 역시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주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각 분류체계 유형의 예시로 언급된 본초서를 포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본초분류체계의 사례를 보여주는 본초서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수집하였다. 전문 본초서 이외에도 의학이론서, 또는 종합이서 내에 편집된 본초에 대한 篇章도 분명한 본초분류체계가 존재한다면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藥性賦, 藥性歌와 같은 歌訣類나 간단하게 병증 별 用藥이 제시된 用藥凡例類 전적들도 역시 본초분류체계가 적용되어 있다면 포함하였다. 중국 본초학의 본초분류에 대한 인식이 한국 본초학의 본초분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초 관련 내용이 수록된 한국의 의서 및 본초서 속의 본초분류도 포함하였다. 혹 일실된 초기 본초서들이 근현대에 김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복본에서 수록한 본초분류를 따랐다.

이렇게 수집한 본초 관련 문헌은 총 95종이며, 수집된 본초분류체계 자료는 본 논고의 말미 【부

록】에 수록하였다. 【부록】에 기재한 성서연대, 수록 본초 수 등의 정보는 본 연구에서 참조한 해당 본초서 출판본의 校注者가 校注說明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 尙志鈞의 작업(7)을 참조하였다.

2) 본초분류체계의 유형 구분 방식

(1) 선행연구의 본초분류체계 유형 구분

본 연구에서는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작업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冉小攀⁸⁾은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의 유형을 ‘자연원칙 분류’와 ‘응용 및 약리 분류’로 크게 구별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대상 문헌 목록과 예시를 밝히지 않아 각 유형의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약물의 고유한 자연적 속성에 의거한 경우, 그리고 약물의 의학적 활용에 관련된 경우로 크게 대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趙建一⁹⁾은 ‘자연속성분류’와 ‘기능분류’의 두 가지로 대별하였는데, 冉小攀의 견해와 유사하다. 그리고 清代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자연속성분류’가, 이후는 ‘기능분류’가 주를 이룬다고 구분하였으며,¹⁰⁾ 기능분류를 다시 ‘三品分類 系統’, ‘諸病通用藥分類 系統’, ‘十劑分類 系統’, ‘『本草求真』分類 系統’, ‘기타 분류 系統’의 5가지 계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병증에 대한 用藥 매뉴얼의 성격 가진 ‘諸病通用藥’이나 약물의 작용을 유형화한 十劑說을 하나의 본초분류체계로 인정한 것은 본초분

7) 尙志鈞. 歷代中藥文獻精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9., 尙志鈞. 中國本草要籍考.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9.

8) 冉小攀. 我國古代本草的編纂和藥物分類方法的發展(一). 中藥通報. 1958. 4(1). p.5. “中國藥物最早的分類, 按藥物自然原則分類, 按應用和藥理的分類”

9)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10)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p.31. “長期以來, 按自然屬性與按功能分類, 是傳統本草著作關於藥物分類的兩大主流. 清代以前, 以自然屬性分類為主, 中藥的功能分類或混於其他分類系統中, 或作為二級分類; 清代以後, 中藥分類漸轉為以藥物功能分類為主.”

류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좋은 착안점이다. 또한 『본초구진』과 같이 복합적인 기능분류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본 것도 의미있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宋詠梅¹¹⁾는 본초분류체계를 ‘上中下三品分類’, ‘자연속성 분류법’, ‘기능 분류법’, ‘성미 분류’, ‘귀경 분류법’, ‘기타’의 6종으로 유형화하였다.

李保傑 등¹²⁾은 ‘自然分類法’과 ‘藥性分類法’의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하였는데, 이 중 약성분류법은 한의학의 약성과 작용특성에 근거하여 분류를 진행한 방법이라 하였다. 그는 藥性分類法을 다시 ‘三品 분류법’, ‘十劑 분류법’, ‘升降浮沈 분류법’, ‘四氣 분류법’, ‘효능 분류법’의 5종으로 세분화하였다.

朱姝 등¹³⁾은 ‘上中下三品分類法’, ‘자연속성 분류법’, ‘효능 분류법’, ‘주치 분류법’, ‘기타 분류법’의 5종으로 본초분류체계의 유형을 구별하고 각 본초분류체계의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해 견해를 간결하고 예리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분류체계 별 본초서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상기 분류체계 유형화의 타당성이나 특성에 대한 견해의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呂雲霞 등¹⁴⁾은 본초학의 발전 과정에서 초기 본초서가 三品 분류법 등 단일한 분류체계를 취하다가 점차 自然屬性分類, 主治分類 등을 보완분류방식으로 결합시켜 다양한 층위의 분류 정보를 구성해나가는 흐름에 대해 지적하였다.

劉詩聰 등¹⁵⁾은 본초분류법 가운데 의학적 분류체계의 세부 분류에 해당하는 ‘기능분류법’과 ‘치법분류법’의 사례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치법분류법’을 ‘기능분류법’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

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설정¹⁶⁾하여 이미 역사 발전 단계 상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 채로 ‘기능분류법’의 한계를 비판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대 중의학에서 주로 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본초 분류법을 채택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점은 참조할 만하다.

한편, 국내에서 오재근 등¹⁷⁾은 김호철의 견해¹⁸⁾를 빌려 三品分類, 자연 속성 분류, 효능 분류, 장부 경락분류, 사전식분류법 등의 유형을 언급한 바 있다.

(2) 본 연구의 본초분류체계 유형 구분

선행연구에서는 본초분류체계의 유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 冉小攀, 趙建一, 李保傑의 연구에서는 모두 본초분류체계를 크게 두 유형으로 대별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약물 고유의 자연적 속성에 바탕을 둔 분류체계와 약물에 대한 의학적 해석 및 활용에 바탕을 둔 분류체계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연구의 유형 구분이 대표성이 있으며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대별의 방식을 따르기로 하였는데, 다만 중의학계에서 통용되는 ‘자연속성’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분류 방식을 담아내기 어려우므로¹⁹⁾ 이를 ‘기원별 분류체계’라고 칭하였으며, 그 이외의 의학적 해석이나 활용법에 의거한 분류를 통칭하여 ‘의학적 분류체계’라고 칭하기로 하였다. 또한 ‘三品 분류체계’는 여러 연구에서도 의학적 분류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神農本草經』에서 비롯

11)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12) 李保傑, 柴清軍. 中藥的分類探討.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09. 7(4). p.9. “中藥分類的方法雖然很多, 但傳統的分類方法概括起來可分為兩大系統: 即藥性分類法和自然分類法.”

13) 朱姝, 王玉芳. 論歷代本草著作之中藥分類方法.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2. 14(10).

14) 呂雲霞 등. 中藥傳統分類與命名文化的認知圖式分析. 江蘇衛生事業管理. 2017. 28(6).

15) 劉詩聰, 範穎, 梁茂新. 古代本草學治法與功能分類法比較. 中華中醫藥學刊. 2021. 39(7).

16) ‘기능분류법’은 단순한 일개 치료작용을 나열한 것으로, ‘치법분류법’은 유기적인 반증론치 이론을 바탕에 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개념 설정에서부터 우열이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다.

17) 오재근, 김용진. 『東醫寶鑑』『湯液篇』의 本草 분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5). 2010. p.59.

18) 김호철. 한약약리학. 서울. 집문당. 2004. pp.16-17.

19) 현대에 ‘自然’이라는 단어는 함의는 매우 폭넓어서 별다른 설명이 없이는 의미를 한정하기 어렵다.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고전적 의미를 취한다면 지칭하는 의미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며, ‘사람의 힘이 작용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현대적 의미를 취한다면 ‘服器部’, ‘人部’와 같은 분류 항목을 포괄하지 못한다.

되었다는 고유한 상징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유형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① 기원별 분류체계 유형

기원별 분류체계는 사람의 질병의 치료에 활용되는 약물의 유래를 소급하여 그 기원이 되는 사물의 범주를 구분한 것이다. 이처럼 기원별 분류체계가 의거하는 기준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므로 굳이 유형을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초서의 변천 과정에서 기원별 분류체계는 가장 장구하게 활용되어 온 체계로서 그 과정에서 사물의 범주 항목이 세분화되거나 추가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원별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범주 항목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를 배열하는 순서에서도 본초서의 성격에 따라 의미있는 변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기원별 분류체계를 취하고 있는 본초서들 내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차이를 감별하고 본초서의 특성과 관련지어 계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일정한 규율을 발견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② 의학적 분류체계 유형

의학적 분류체계 내에서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세분화를 고려하였는데, 총 5가지로 유형을 나누었다. 우선 ‘작용 분류’, ‘氣味 분류’, ‘병증 분류’, ‘歸經 분류’의 네 가지 유형을 만들었고, 추가로 ‘복합적 분류’를 따로 두어 위 네 가지 분류만으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소속시켰다.

사실 의학적 분류체계를 體用論의 관점에서 이원화한다면, 약물 자체가 가진 성질(體)에 의거한 분류 방식, 그리고 약물이 주로 활용되는 病證의 특성(用)에 의거한 분류 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의학적 분류체계를 크게 두 유형으로만 구별하더라도 의학적 분류체계를 개략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氣味와 歸經이 가진 본초학 내에서의 이론적 위상을 고려하여 이들을 별개의 유형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보아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밖에 4개의 분류 기준이 혼용된 본초서도 상당

수 존재하는데, 전체 약물에 대해 각 분류체계가 모두 일관되게 적용된 경우는 각각의 사례로 따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趙建一의 연구에서 ‘『본초구진』 분류 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 인정한 사례처럼 여러 의학적 기준이 혼용되었으나 일관되게 전체 약물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결합하여 특수한 작용 경향을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학술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므로 ‘복합적 분류’로 따로 규정하였다.

2. 본초서 속 三品 분류체계

三品 분류체계는 삼품 분류는 약물의 작용, 약물의 독성을 중심으로 드러낸다²⁰⁾는 점에서 ‘의학적 분류체계’에 소속될 수 있으나, 本草學 전통의 서막을 연 『신농본초경』(이하 『본초경』)에서 취한 분류 체계로서 고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분리하였다.

『본초경』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365종 약물 중 三品 중의 上藥은 120종으로 군약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사람의 생명의 요소 중 命을 길러주어 天地人 三才 중 天의 의의를 갖고 無毒하다고 하였다.²¹⁾ 中藥도 120종으로 臣藥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사람의 性을 길러주어 三才 중 人의 의의를 갖고 無毒하다고 하였다.²²⁾ 下藥은 125종으로 佐使藥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毒이 있는 경우가 많아 病의 邪氣를 주로 다스려 三才 중 地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다.²³⁾

20) 韓佳瑞 외 5인. 《神農本草經》之三品分類淺析. 中醫雜誌. 2011. 52(23). pp.1992-1994. “三品分類方法的核心內涵包括兩方面：一是重視藥物的功效，把功效作為中藥分類的一個重要原則，二是重視藥物的毒性。(삼품분류법의 핵심적 내용은 두 경향을 포괄하는데, 첫째는 약물의 功效를 증시하여 功效를 약물 분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것이며, 둘째는 약물의 독성을 증시하는 것이다.)”

21) 唐慎微.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6. “上藥一百二十種爲君，主養命以應天。無毒。多服久服不傷人。欲輕身益氣，不老延年者，本上經。”

22) 唐慎微.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6. “中藥一百二十種爲臣，主養性以應人。無毒，有毒，斟酌其宜。欲遏病補虛羸者，本中經。”

23) 唐慎微.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6.

이 중 上藥에서는 광물성 약물이 다수를 차지하며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道家의 內丹術과 관련하여 草木 기원 약물보다 광물성 약물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⁴⁾ 이러한 배열순서는 기원별 분류체계가 적용되는 『오보본초』 및 『본초경집주』 이래로 玉石部를 첫머리에 배열하게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三品 분류체계는 『본초경』 이래 『吳普本草』, 『名醫別錄』, 『本草經集注』, 『千金要方』, 『新修本草』, 『千金翼方』, 『日華子本草』, 『蜀本草』, 『本草圖經』, 『嘉祐本草』, 『證類本草(大觀政和)』, 『寶慶本草折衷』, 『本草品彙精要』, 『神農本草經疏』, 『神農本草經百種錄』, 『本草崇原』, 『本草經讀』, 『本經疏證』 등의 오랜 세월이 걸쳐 편찬된 여러 본초서에 적용되어 왔다. 다만 『본초경』 이후 陶弘景이 『본초경집주』에서 기원별 분류체계를 대분류로 채택하고 三品 분류체계를 소분류에 둔 이래, 『본초경』 자체에 대한 주석서 계통²⁵⁾을 제외하면 三品 분류체계가 대분류로 채택된 경우는 없다. 대체로 唐宋代의 주요 본초서, 특히 『본초경』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본초의 목록을 확장해 온 정통본초서에는 三品 분류체계가 다른 분류체계와 함께 병렬적으로 적용되었으며,²⁶⁾ 明清代의 『본초경』 주석서들에서도 이를 존중하여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²⁷⁾

“下藥一百二十五種爲佐使，主病以應地。多毒，不可久服。欲除寒熱邪氣，破積聚，愈疾者，本下經。”

24) Jang 등은 道家 內丹(active substance in the body)의 영향이라고 언급하였고 韓佳瑞 등은 方士들의 服食仙丹服食仙丹의 풍조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p.448., 韓佳瑞 외 5인. 《神農本草經》之三品分類淺析. 中醫雜誌. 2011. 52(23). pp.1992-1994.)

25) 『본초승원』, 『본초경독』, 『본경소증』 등

26) 韓佳瑞 외 5인. 《神農本草經》之三品分類淺析. 中醫雜誌. 2011. 52(23). pp.1992-1994. “雖然陶弘景創立了按自然屬性分類的方法，但一直到金元時期，曆代修訂本草仍然保留了三品分類方法，並將其作爲分類的依據。唐、宋時期具有重大影響的本草著作，例如有中國最早藥典之稱的《新修本草》依然沿用自然屬性與三品分類相結合的分類方法。”

27) 韓佳瑞 외 5인. 《神農本草經》之三品分類淺析. 中醫雜誌. 2011. 52(23). pp.1992-1994. “雖然在明、清時期《本草綱目》的自然屬性分類方法成爲大多數本草編寫的主要體例，

三品 분류체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배제하려는 학술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본초강목』부터 볼 수 있는데, 李時珍은 본초 목록의 확장되면서 三品 분류가 그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였음을 지적하고 三品 분류체계를 채택하지 않았다.²⁸⁾

三品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소략한 구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약물에 대한 심도있는 인식과 분별적 이해를 드러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²⁹⁾ 따라서 약물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점차 심화되는 등 본초 지식이 확충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분류 방법이 요구되면서 三品 분류는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³⁰⁾ 본초 목록이 730여종으로 확장된 『본초경집주』에서부터는 기원별 분류가 중심분류체계의 상위를 차지하였고 三品 분류는 그 하위에 자리잡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清代에 이르기까지 三品 분류가 간간히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 그것이 본초학 학술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三品 분류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인 ‘단순성’은 역설적으로 보면 ‘직관적인 인식의 도구’가 될 수

但仍有少數本草著作採用自然屬性與三品相結合或僅採用三品的分類方法。如清代張志聰撰寫的《本草崇原》、鄒澍的《本經疏證》等仍沿用三品分類方法。”

28) 李時珍은 약물이 증보되면서 三品 분류의 의의가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았다. 단, 기존 『본초경』 및 『명 의별록』에서 가져온 약물의 경우 해당 약물 條下에 三品을 표기하였다.(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44. “時珍曰，神農本草，藥分三品。陶氏別錄，倍增藥品，始分部類。唐宋諸家大加增補，兼或退出。雖有朱墨之別，三品之名而實已紊矣。”)

29) 呂雲霞 등. 中藥傳統分類與命名文化的認知圖式分析. 江蘇衛生事業管理. 2017. 28(6). p.96. “但缺乏對中藥的深入了解和認識。”

30) 李保傑 등과 萬德光은 모두 ‘약물의 증보’ 및 ‘약물과 병증에 대한 인식 심화’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萬德光. 中藥三品分類的淵源與沿革. 中國醫藥學報. 1992. 7(3). p.24. “中藥三品分類的廢止，是中藥發展歷史的一種自然的現象。其原因主要是由於藥物日益增多，對疾病的認識逐漸深化，需要用更爲精細的分類方法對中藥進行分類。”，李保傑，柴清軍. 中藥的分類探討.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09. 7(4). p.9. “然而由於藥物的日益增多和對藥物認識上的不斷深化，這種分類方法的局限性便日見暴露出來，單憑三品分類的方法已不能適應客觀需要。”)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전적으로 역사적 상징성으로만 평가절하하는 것이 온당하지는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본초서 속 기원별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 역사 초기 본초서에서부터 주된 분류체계로 채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魏吳普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오보본초』, 그리고 도홍경의 『본초경집주』에서 채택하면서 기원별 분류체계가 가장 지배적인 분류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明清代를 거치며 의학적 분류체계가 크게 대두된 후에도 기원별 분류체계를 주 분류로 채택한 본초서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의학적 분류체계를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경우에도 기원별 분류를 하위에 두거나³¹⁾, 일부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기원별 분류를 취한 경우도 존재한다.³²⁾

기원별 분류체계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본초서에 따라 구성 항목이 추가되거나 탈락되는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어서 구성 항목의 배열순서에 있어서의 차이를 유형화하여 보고자 하였다.

1) 기원별 분류체계 구성 항목의 변천

구성 항목(분류 항목)의 변천 과정에서 변곡점이 되는 본초서는 『오보본초』 또는 『본초경집주』, 그리고 『본초강목』이다. 『오보본초』 또는 『본초경집주』에서 초기 기원별 분류체계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면, 『본초강목』은 극도로 세분화 및 체계화가 이루어진 완성도 높은 기원별 분류체계를 제시하면서 기원별 분류체계 변천의 이정표가 된다.

기원별 분류체계 구성 항목을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크게 植物, 動物, 無 생물, 기타로 구분해볼 수 있다. 植物 항목은 草木果穀菜部를 기본 틀로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動

物 항목은 禽獸蟲魚部를 기본 틀로 하여 항목 간 분리·결합 및 항목의 출입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이후 人部 및 鱗介部가 들어오면서 『본초강목』 체계가 완성되었다. 무생물 항목의 경우, 玉石部(金石部)가 기본 틀이었는데 『본초강목』 이래로 水火土部가 시나브로, 혹은 일거에 도입되고 『본초원시』에서 石金水土部를 합쳐서 수록한 것처럼 항목 간 결합 등 약간의 변형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밖에도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과 관련된 服器部, 음식 조리에서 사용하는 조미료나 향신료에 관련된 味部料物性味와 같이 사람의 입장에서 부여한 용도에 따른 항목도 존재하며, 과거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본초서 저술 당시에는 활용되지 않는 약물의 기록을 보존한 경우, 또 과거에 기재되지 않았던 약물을 새로 기재한 경우도 보인다.(【부록】 참조)

(1) 『吳普本草』 및 『本草經集注』 계열 본초서

『오보본초』와 『본초경집주』에서는 玉石部, 草木部, 蟲魚部(蟲獸部), 果菜米穀部의 4개로 약물들을 분류했으며, 이는 후대 본초서의 전범이 되었다. 이 계열은 상기 두 본초서의 분류를 토대로 하되, 『본초강목』에서 새로 도입되는 4가지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³³⁾을 기준으로 삼았다.(【부록】 참조)

이 계열을 시대순으로 나열해보면 『천금요방』, 『신수본초』, 『천금약방』, 『本草拾遺』, 『海藥本草』, 『일화자본초』, 『축본초』, 『가우본초』, 『증류본초』, 『보경본초절충』, 『湯液本草』, 『本草發揮』, 『本草集要』(中部), 『珍珠囊補遺藥性賦』(권34), 『본초품휘정요』, 『本草約言』, 『本草蒙筌』, 『本草發明』, 『本草便』, 『신농본초경소』, 『본경소증』이 있는데, 소품의 세분화, 변화는 있지만 대체로 『본초경집주』의 체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본초경집주』에서 『신수본초』로 넘어가면서 草木部가 각각 草部와 木部로 분리되고, 蟲獸部는 각각 獸禽部, 蟲魚部, 果菜米穀部는 果部, 菜部, 米部로 나뉘어져서 비로소 가장 대표적인 기원별 분류체계

31) 『요약분제』

32) 『분부본초요용』,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 『의학입문본초분류·식치문』, 『진주낭보유약성부』

33) 무생물 항목의 水火土部, 動物 항목의 鱗介部, 기타 服器部, 植物 항목에서 하위 소분류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기준이 된다. 뒤에서 논하였다.

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草木果穀菜의 植物 항목은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친금익방』도 『신수본초』의 분류체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獸禽部를 人獸部로 바꾸어 人部가 처음으로 기원별 분류체계에 도입된 최초의 사례가 된다.

아래에서는 『본초경집주』 이후 의미있는 분류 항목의 변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人部를 도입하지 않은 『신수본초』 계열

『신수본초』의 분류체계를 따른 본초서 계열이 존재한다. 『신수본초』를 학술적으로 보완·계승한 『본초습유』, 『일화자본초』, 『축본초』, 『가우본초』는 분류체계 역시도 온전히 따랐다. 『본초습유』의 경우 『본초경집주』와 유사하게 果菜米部를 果菜米 각각으로 분리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본초 목록을 보완하려는 ‘拾遺’의 특성상 항목 간 약물 수의 편차가 있어 따로 독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약본초』는 해외에서 유입된 소수의 본초를 분류한 특수한 본초서로서 『신수본초』를 기준으로 볼 때 禽菜部가 빠져있는데 종류가 적어 해당 部의 본초가 없어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탕액본초』도 人部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옥석부」가 뒤로, 草部, 木部는 앞으로 배열하여 순서가 달라졌다. 배열순서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부록】 참조)

② 人部를 도입한 『證類本草』 계열

『증류본초』는 『친금익방』을 이어 人部를 도입하였는데, 『친금익방』과 달리 人部를 禽獸部에서 독립시켰다. 이외에 『보경본초절충』, 『본초발휘』, 『향약집성방』, 『본초집요』(中部), 『진주낭보유약성부』(권3·4), 『본초품회정요』, 『본초약언』, 『본초몽전』, 『본초발명』, 『본초편』, 『신농본초경소』, 『본경소증』도 동일한 특성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宋代 『보경본초절충』은 이 계열 중 예외적으로 水部가 도입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룬 문헌 중 水部가 수록된 가장 이른 시기의 본초서이다. 또한 玉

石部가 보이지 않는데 이후의 『본초집요』(中部), 『본초약언』, 『본초몽전』, 『본초발명』, 『본초편』 등 본초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증류본초』의 체계를 채택하였다. 더라도 점차 玉石部(金石部)가 草木部의 뒤편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점차 玉石部에 비해 草木部가 중시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³⁴⁾

이러한 『증류본초』의 분류 체계는 『본초강목』이 출현하기까지 본초분류체계의 전범이 되었으며, 나중에 『본초강목』 역시 이를 기초로 삼아 완성도 높은 기원별 분류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의서인 『향약집성방』도 『증류본초』의 본초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 참조)

(2) 『본초강목』 본초분류체계의 성립과 그 영향

『본초강목』(이하 『강목』)은 16세기 이전의 본초학을 체계적으로 총결산한 대작으로 평가받는만큼³⁵⁾ 후대 본초서의 전범이 되는 문헌이다. 이전과 구별되는 『강목』의 특징으로는 4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 水部, 火部, 土部 등의 무생물 분류 항목의 도입, 둘째, 鱗部·介部의 도입, 셋째, 服器部의 도입, 넷째, 대분류[部] 하위에 세분화된 소분류[類]의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강목』의 특징을 수용한 정도에 따라 『강목』의 영향을 받은 본초서들을 구별하였다.(【부록】 참조)

① 『본초강목』 본초분류체계의 특징을 일부 수용한 문헌

기존 『증류본초』 체계를 기본 틀로 삼되 『강목』의 대표 특성의 일부만을 수용한 본초서의 계열이 존재한다. 『本草原始』, 『分部本草妙用』, 『本草微要』, 『本草通玄』, 『本草備要』, 『要藥分劑』, 『藥性提要』, 『本草分經』(「總類便覽」, 「同名附考」), 『本草便讀』은

34) 아래의 ‘草部 중심 배열 특성’에서 상세히 논한다.
35) 尙志鈞은 16세기 이전 의학을 총결한 대작이라고 평가하였다.(尙志鈞. 中國本草要籍考.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9. “李時珍的《本草綱目》是一部系統的總結我國16C以前藥學的巨著.”)

水部, 火部, 土部 및 鱗部, 介部 등 『강목』의 특징적인 구성 항목의 일부를 수용한 문헌들로서, 『강목』의 영향이 인정되기는 하나 일치도가 높지 않으며 배열순서도 상이하다. (【부록】 참조)

이 중 『본초비요』, 『요약본제』, 『약성제요』, 『본초분경』(『총류편람』³⁶, 『동명부고』), 『본초편독』은 『강목』의 水部, 土部와 鱗部, 介部를 도입하여 비교적 『강목』과의 일치도가 높다. 반면 『본초징요』, 『본초통현』, 『분부본초묘용』 등은 앞의 항목들 중 1~3가지의 구성 항목만을 도입하였으나 『강목』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② 『본초강목』 본초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문헌

반면 『강목』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기본 틀로 삼되, 일부 항목의 변형이 이루어진 본초서의 계열이 있다. 『本草彙言』, 『本草彙』, 『本草洞詮』, 『本草彙箋』, 『本草述』, 『本經逢源』, 『本草從新』, 『得配本草』, 『本草綱目拾遺』, 『類經證治本草』(經外藥類), 『本草述鉤元』, 『本草精華』, 『醫宗損益』(약성가), 『方藥合編』(약성가), 『林園經濟志·仁濟志』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본초술』, 『본경봉원』, 『득배본초』는 『강목』의 대분류 항목 구성과 배열순서가 거의 동일하다. 특히 『본경봉원』, 『득배본초』는 『강목』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服器部를 ‘藏器部’, ‘服帛部’라는 명칭으로 수용하였다. (【부록】 참조)

『본초휘』, 『본초통전』은 『강목』도 대분류 항목 구성과 거의 동일하나 배열순서는 조금 다르다.

『본초휘언』, 『본초휘전』, 『본초종신』,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는 鱗介, 土火 등을 도입하였는데, 『본초휘언』은 『강목』의 큰 특징인 服器部를 수용하였으며,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는 毒石部, 靈獸部 등과 같은 독특한 항목을 자체적으로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본초강목습유』는 『강목』을 토대로 본초 목록을 증보할 목적으로 기술된 문헌으로³⁷, 기본적인

로 『강목』의 분류체계를 따랐음이 명백하나 소분류까지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증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土·金石)이 제외된 경우가 있다.

③ 『본초강목』 소분류[類]를 수용한 문헌

『景岳全書本草正』, 『본초휘언』, 『본초휘전』, 『본초술』, 『본경봉원』, 『본초종신』, 『득배본초』, 『유경증치본초』(경외약류), 『본초술구원』, 『植物名實圖考』, 『본초정화』, 『의중손익』(약성가), 『방약합편』(약성가), 『본초편독』, 『본초정의[民]』³⁸)는 『강목』의 특징인 소분류[類] 체계를 전체, 또는 일부 수용한 본초서들이다. (【부록】 참조)

『본초휘언』, 『본초휘전』, 『본초술』, 『본경봉원』, 『본초종신』, 『득배본초』,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 『본초술구원』은 모두 『강목』과 대분류가 거의 유사하며 소분류까지도 수용하였다. 다소의 가감이나 변화는 있지만, 『강목』의 분류 체계를 가장 온전히 수용한 문헌들로 보인다.

『강목』의 소분류를 각 서적의 필요에 따라 일부만 수용한 문헌도 다수 존재한다. 『경약전서·본초정』, 『본초정의[民]』은 대분류 구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유독 草部에서는 『강목』의 草部 소분류를 반영하였다. 植物 전문서인 『식물명실도고』는 동물 및 무생물 항목은 빠져있지만 草部의 하위 소분류는 『강목』을 따랐다. 『본초편독』은 『강목』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분류가 소략하지만 소분류[類]를 두는 체계는 『강목』에서 수용한 것이다.

한국 의서인 『본초정화』와 『의중손익』, 『방약합편』(약성가)의 분류체계도 『강목』의 소분류를 수용하여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영향이 심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3) 특수한 분류체계를 보이는 본초서

1989. “各卷分類大致按《綱目》次第”

38) 『本草正義』는 清代(1828) 張德裕, 그리고 民國시기(1920) 張山雷 각각의 同名 저작이 존재하는데, 본문에서는 서명 뒤에 ‘[清]’, ‘[民]’을 附記해 구별하였다.

39)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오재근 등의 연구(오재근, 김용진.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의사학. 2011. 20(1).)를 참조할 수 있다.

36) 『총류편람』에는 土部 대신 火部가 나타난다.

37) 尙志鈞. 歷代中藥文獻精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千金要方·食治』, 『飲膳精要』, 『本草約言·食物本草約言』⁴⁰⁾, 『食品集』, 『醫學入門·本草分類·食治門』, 『食鑑本草』, 『本草彙纂·日食藥物』은 食物本草書이다. 이들은 일반 본초서들처럼 약물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약성을 따지기보다는 주로 식용할 수 있는 사물을 분류하고 이를 食治에 활용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독특한 기원별 분류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참조)

이들 食物本草書의 공통점은 일반적인 기원별 분류체계에서 모두 常食할 수 없는 玉石部(金石部)가 제외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5종의 식물 분야 분류 항목인 ‘草·木·果·菜·穀(米)’ 중에서도 草·木을 제외한 나머지 ‘果·菜·穀(米)’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⁴¹⁾ 특히 『천금요방·식치』, 『본초약언·식물본초약언』은 모두 米穀部(穀部)가 가장 앞에 있어 食物 중穀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食物本草書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은 조미료 또는 향신료를 수록한 味部나 料物性味 관련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食物本草書 중 『음선정요』, 『본초약언·식물본초약언』, 『식감본초』가 여기에 해당한다.

食物本草書 이외에도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본초서에서 기원별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가 보이는데, 『救荒本草』, 『滇南本草』, 『해약본초』, 『식물명실도고』가 그러한 경우이다.

『구황본초』는 흉년이 든 해의 救荒을 위해 편찬된 문헌으로서 엄밀한 의미의 본초서라고 부르기는 어려운데, 草·木·米穀·果·菜의 5개 植物 분야 분류 항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그 세부 분류에서는 葉·根·實·花·莖·筍의 植物 부위 중 식용 가능한[可食] 부위를 나누어 기재하여⁴²⁾ 오히려 食物本草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남본초』는 『履巖巖本草』와 같이 특정 지방의 약물을 기재한 지방본초서로서, 독특하게도 草部, 鳥部, 獸部, 蟲部의 총 4가지 분류만 두고 있으며 전체 280종 약물 중 鳥獸蟲을 합친 약물 수가 12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草部일 정도로 草部の 비중이 크다.⁴³⁾ ‘滇南’은 현재의 雲南 지역으로서 그 기후 특성 상 과일류가 많이 생산되므로 果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본 연구도 있다.⁴⁴⁾ 『해약본초』도 유사한 경우인데 해외로부터 유입된 약물을 기재한 해외본초서에 해당한다.

植物 전문서인 『식물명실도고』는 蟲魚部, 禽獸部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穀部를 필두로 한 植物 분야만 수록하였다. 草部에는 하위분류를 두었는데 『본초강목』의 草部 소분류와 유사하다. 『본초정의[民]』에는 草部の 소분류만이 수록되어 있는데,⁴⁵⁾ 그 배경에는 本草學의 본질을 추구하여 草類를 가장 앞에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저자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⁶⁾

2) 기원별 분류체계 구성 항목의 배열 특성

앞서 기원별 분류체계의 구성 항목이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하여 왔는가의 문제를 통해 본초서의 계열을 살펴보았다. 분류체계를 이루는 구성 항목 종류의 문제는 ‘어떠한 사물 범주를 다루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배열하는 순서 속에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담겨있다.

동아시아 문헌의 目錄 배열순서에는 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있다고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본초서의

40) 본 연구에서 수집한 佚名氏의 『식물본초』(佚名, 食物本草(上, 下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는 『본초약언·식물본초약언』의 내용과 같으므로 따로 다루지 않는다.

41)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p.60. “如《日用本草》以“摘其切於飲食者”爲特點, 故不設石類, 且置米穀類於諸類之先。”

42) 尙志鈞. 中國本草要籍考.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9. p.268. “該書是記載可食的野生植物”

43) 『전남본초』는 판본에 따라 내용의 편차가 큰 편인데, 본 연구에서는 ‘淸初雲南刊本’을 저본으로 한 中國中醫藥出版社 출판본(蘭茂. 滇南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을 근거로 삼았다.

44)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p.60. “<滇南本草>收錄藥物具有明顯的地域性, 因滇南爲四季常青之地, 盛產瓜果, 故果品類居於諸類之首。”

45) 서문에는 草部를 앞에 두고 木果蔬穀, 金石, 鳥獸蟲魚, 人을 배열하였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草部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葉顯純. 張山雷《本草正義》評注(二). 中醫藥文化. 1992(4). 1992. p.43. “爰以草部爲各藥之冠, 而木果蔬穀次之, 金石又次之, 鳥獸蟲魚又次之, 終之以人類爲殿”)

46) 이에 대해서는 ‘2) 기원별 분류체계 구성 항목의 배열 특성 / (2) 草部 중심 배열 특성’에서 자세히 논한다.

앞에서 전체 내용의 구조를 결정하는 분류체계의 구성 항목을 배열하는 순서에도 또한 중대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그 배열순서의 ‘첫머리’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 나머지 전체의 순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첫머리’를 중심으로 본초분류체계의 항목 배열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부록】 참조)

(1) 玉石部(金石部) 중심 배열 특성

『오보본초』, 『본초경집주』와 같은 초기 본초서의 분류체계에서는 玉石部(金石部)를 첫머리에 배열하였다. 『오보본초』, 『본초경집주』로부터 옥석부 혹은 금석부를 앞세운 분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본초경』의 三品 분류에서 上品의 첫머리에 광물성 약물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당시 道家의 神仙方士術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기원의 약물을 중시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⁴⁷⁾

唐宋代的 『신수본초』, 『천금익방』, 『본초습유』, 『일화자본초』, 『축본초』, 『가우본초』, 『증류본초』와 같은 ‘本草’ 계승의 정통 본초서들도 이를 계승하여 玉石部를 머리에 두었으며, 明代 관찬 본초서인 『본초품휘정요』, 그리고 明清代的 『신농본초경소』와 『본경소증』도 『본초경』 주석 전통을 계승하여 玉石部(金石部)를 앞에 배열했다.

이외에 『증류본초』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본초발휘』, 『향약집성방』, 『진주나보유약성부』(권 3,4), 『본초품휘정요』와 같은 본초서들도 玉石部(石部)를 앞에 두었다.(【부록】 참조)

(2) 草部 중심 배열 특성

후대에는 점차 草木部가 첫머리로 나오면서 玉石部(金石部)가 뒤편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탕액본초』, 『보경본초절충』, 『구황본초』, 『전남본초』, 『본초집요』(中部), 『본초약인』, 『藥性要略大全』, 『본초몽전』, 『본초발명』, 『본초편』, 『본초원시』, 『본초취언』, 『경악전서본초정』, 『본초집요』, 『본초통현』

』, 『본초취』, 『본초취전』, 『본초비요』, 『요약분제』, 『본초종신』, 『약성제요』,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 『본초정화』, 『의종손익』, 『방약합편』(약성가), 『본초편독』, 『본초정의[民]』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록】 참조)

이러한 경향 속에는 약물학 전통을 ‘本草’라고 명명한 가운데에 草木의 역할을 중시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배열 특성을 대표하는 본초서 중 하나인 明代 王綸의 『본초집요』(中部)(이하 『집요』)에서는 본초분류체계 설정의 취지에 대해 “『본초경』에서 部를 나눔에 玉石을 앞에 둔 것은 그것이 귀중했던 것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지금 이 책에서 草部를 앞에 둔 것은 책의 이름이 ‘本草’이며 藥物 중에 草類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⁴⁸⁾ 다음으로 木部를 두고 그 다음으로 菜部果部穀部를 둔 것도 草木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石部를 둔 것은 지각이 없는 사물로서 草木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獸部禽部蟲魚部를 두고 人部로 마치는 것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다.”⁴⁹⁾라고 설명하였다. 즉, 玉石을 앞세우는 전통적인 분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본초학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는 草木을 기준으로 틀을 재편성하고자 하였으며 나머지 분류들도 草木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배열하였음을 볼 수 있다.

草木을 중시하는 『집요』의 관점은 이후 본초서의 전범이 되는데, 『본초몽전』은 『집요』를 분류체계 배열의 모델로 삼았음을 분명히 언급하였다.⁵⁰⁾ 『집요』에서 草木에 본초학의 중심적 지위를 부여한 취지에

47) 오재근, 김용진. 東醫寶鑑「湯液篇」의 本草 분류에 대한 연구. 大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5) pp. 55-66.

48) 실제로 본 연구 과정에서 대부분의 본초서의 草部 약물은 여타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소속 약물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49) 王綸. 本草集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1. “本草部分先玉石, 取貴重耳, 其他亦多不倫. 今此先草部者, 書以本草名, 藥莫多於草也. 次木部, 次菜部果部穀部者, 草木之類也. 次石部者, 無知之物, 草木同也. 次獸部禽部蟲魚部, 終以人部焉, 人爲萬物之靈也.”

50)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21. p.3. “卷數次序悉宗集要規式, 先草部者, 書以本草名, 藥莫多於草也. 次木部者, 木草類也. 次穀部菜部果部者, 草木之餘也. 次石部獸部禽部蟲魚部人部者, 塊然者, 石也, 蠢然者, 禽獸蟲魚也, 人靈萬物, 故終焉.”

대해 이후 본초가들의 동의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 『본초약언』, 『약성요략대전』, 『본초발명』 등도 이러한 관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후 『본초강목』이라는 지배적인 본초서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틀을 수용하였더라도 『강목』이 水部·火部·土部·金石部를 첫머리에 배열한 체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草部를 앞세운 본초서가 상당수 존재한다. 『본초편』, 『본초원시』, 『본초휘언』, 『경약전서·본초정』, 『본초통현』, 『본초휘』, 『본초휘전』, 『본초비요』, 『본초중신』, 『약성제요』,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 『본초편독』, 『본초정의[民]』가 여기에 해당하며, 『본초정화』, 『의종손익』, 『방약합편』(약성가)와 같은 한국 의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많은 본초서들에서 『본초강목』의 완성도 높은 기원별 분류체계를 취하면서도, 草部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 본초학이 지향하는 가치관 측면에서나 실용성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데에 동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⁵¹⁾

이외에 『구황본초』, 『전남본초』의 경우는 각각 食物本草書의 특성을 갖는 특수 본초서이거나 植生에 대한 기제가 중심이 되는 지방본초서라는 점에서 草部를 앞에 둔 뜻에 차이가 있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水部 중심 배열 특성

宋代 『보경본초절충』에서 이른 시기에 水部가 나타나, 본격적으로 水部가 대두되는 것은 李時珍의 『본초강목』으로부터이다. 李時珍은 『강목』에서 우주 생성론적 사유에 기반하여 만물의 시초에 해당하는 水火와 土를 분류의 머리에 두었고 이어서 金石과 草木을 배열하였으며, 식물류에 대해서는 草谷菜果木의 ‘從微至巨’의 순서를 취하였고, 동물류에 대해서는 蟲鱗介禽獸의 ‘從賤至貴’의 순서를 취하였

다.⁵²⁾ 특히 水는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이라고 보고 藥食에 관련된 43종의 물의 양태를 水部에 수록하였다.⁵³⁾

『강목』 분류체계의 큰 틀을 채택한 『본초강목습유』, 『본초술』⁵⁴⁾과 『본초술구원』, 『본경봉원』⁵⁵⁾은 水部를 머리에 두는 특성까지 함께 수용하였으며, 이들에 비해 비교적 『강목』과의 차이가 있는 『본초통전』, 『득배본초』도 水部를 첫머리에 배열했다.

한국 의서인 『동의보감·탕액편』도 水部를 가장 앞에 배열하였는데 허준도 역시 『강목』과 유사한 관점을 표명하였다. 『동의보감·탕액편』의 水部에서는 그 배열의 취지를 『周易』의 『河圖』에서 말한 “天一生水”를 통해 제시하였다.⁵⁶⁾ 이는 맨 끝에 등장하는 金部와 상응하는데, 金部の 약물인 金屬에 대한 설명에서 “天一이 水를 낳으니 水生木하고 木生火하고 火生土하고 土生金하여 金이 최후에 생겨나 五行의 氣를 갖추었으니 造化의 功用이 온전하다.”⁵⁷⁾고 하여 “天一生水”로부터 일어나는 五行의 相生을 전체적인 틀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초약언·식물본초약언』도 水部를 앞에 내세웠는데 물은 藥食과 관련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 본초서가 食物本草書인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목』이라는 전범이 출현하기 이전임에도 『식품집』에서 水部를 도입한 것 역시 食物本草書인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록】 참조)

52)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3. “今各列爲部, 首以水火, 次之以土. 水火爲萬物之先, 土爲萬物之母也. 次之以金石, 從土也. 次之以草穀菜果木, 從微至巨也. 次之以服器, 從草木也. 次之以蟲鱗介禽獸, 終之以人, 從賤至貴也.”

53)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87. 『本草綱目』 「水部」 “蓋水爲萬物之源, 土爲萬物之母, 飲資於水, 食資於土. …… 今聚水之關於藥食者, 凡四十三種, 分爲二類. 曰天, 曰地.”

54) 尙志鈞. 歷代中藥文獻精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9. “分部次序多同《本草綱目》, 少類藥品的位置有更動.”

55) 張璠. 本經逢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校注說明: 參考《本草綱目》的分類方法.”

56)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678. “天一生水, 故以水爲首.”

57)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751. “金者五行之極, 五行相生, 至金而極.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最後生, 備五行之氣, 造化之功用, 全矣.”

51) 張山雷. 本草正義.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3. “壽願竊考本草命名之義, 古人已謂藥有玉石草木禽獸等類, 而云本草者, 以諸藥中惟草爲最多之故, 是以近人著述, 亦間有以草類居首者, 義即本此. 壽願謂, 今世所用藥物, 草木最爲多數, 而玉石之應用者寥寥無幾, ……”라고 하여 같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4) 米穀部 중심 배열 특성

米穀은 常食할 수 있어 몸을 길러주는 의미가 있으므로 주로 음식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데, 실제로 『음선정요』, 『식품집』, 『의학입문·본초분류·식치문』, 『식감본초』, 『본초휘찬·일식채물』과 같은 食物本草書에서는 대부분 米穀部(穀部)를 첫머리에 배열하였다. (【부록】 참조)

植物 전문서인 『식물명실도고』 또한 곡류가 가장 앞에 나온다.

『동의보감탕액편』은 穀部를 가장 앞에 배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水部, 土部에 이어 세 번째로 배치하면서 中和의 土德을 부여받아 유일하게 사람의 性命을 기를 수 있는 사물이어서 사람에게 큰 공헌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을 정도로⁵⁸⁾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위와 비슷한 관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5) 人部 중심 배열 특성

人部는 唐代 『천금익방』에서 人獸部의 형태로 처음 보이나 기원별 분류체계에 독립 항목으로 도입되는 것은 『증류본초』 이후이다.

이후 기원별 분류체계 내에서 人部를 도입한 경우 항목 배열 시 人部의 자리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禽獸蟲·魚鱗介 등의 動物 항목의 가장 앞자리인 경우인데 이 경우 전체 첫머리인 경우는 없고 玉石, 草木 등의 뒤에 자리잡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둘째는 전체 배열의 가장 뒷자리이자 動物 항목의 가장 뒷자리에 두는 경우이다. 셋째는 動物 항목의 가장 뒷자리인 경우인데 이 경우 모두 바로 뒤에 水·火·土·金·石 등의 무생물 항목을 두게 되며 전체 배열 상 거의 뒷부분에 자리잡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은 人部를 첫머리에 두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부록】 참조)

첫째의 경우는 『천금익방』, 『증류본초』, 『보경본초절충』, 『본초발휘』, 『향약집성방』, 『진주낭보유약성부』(권3,4), 『본초품휘정요』, 『본초약언』, 『약성요

략대전』, 『본초발명』, 『신농본초경소』, 『본초정요』, 『본초통전』, 『본초휘전』, 『요약분제』, 『본경소증』이 해당한다. 人部를 배치하는 초기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動物 항목 중 가장 존귀한 것을 앞에 배치하는 원칙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참조)

둘째의 경우는 『본초집요』(中部), 『본초몽전』, 『본초강목』, 『본초편』, 『본초원시』, 『본초휘언』, 『경약전서·본초정』, 『본초비요』, 『본초술』, 『본경봉원』, 『본초종신』, 『득배본초』, 『약성제요』, 『본초술구원』이 해당하는데, 이는 우주 속의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초집요』에서 “終以人部焉, 人爲萬物之靈也.” 이라고 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 이러한 배열이 나타나는 기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草部 중심 배열 특성’에서도 王綸의 논의가 역사적 변곡점을 이루었던 것에서도 보듯 王綸의 『본초집요』는 기원별 본초분류체계에 가치관을 새로이 부여하여 학술적 경향을 선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목』에서도 이른바 ‘從賤至貴’의 배열 원칙⁵⁹⁾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록】 참조)

셋째의 경우는 『본초통현』, 『본초휘』, 『임원경제지·인제지』, 『본초정화』, 『의종손익』, 『방약합편』(약성가), 『본초편독』이 해당하는데, 의미상 첫째 및 둘째 경우의 원칙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결국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動物 가운데에서, 또는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록】 참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해볼만한 사실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공통적으로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人部를 전체 배열의 첫머리에 두는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순적이어서 의문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서는 본초서에 人部를 실는 것에 대한 『본초발명』의 논평을 吟味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자인 皇甫嵩은 『明本草類辨』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草木, 禽獸, 魚蟲과 나란히 배

58)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681. “天地間, 養人性命者, 惟穀耳. 備土之德, 得氣中和, 故其味淡甘而性和平. 大補而滲泄, 乃可久食而無厭, 是大有功於人者也.”

59)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3. “次之以蟲鱗介禽獸終之以人, 從賤至貴也.”

열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인체 유래물을 약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人部의 약물은 ‘좋은 약도 아니며, 또 구하기도 어렵고, 혹 다른 약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까지 말하였다.⁶⁰⁾ 李時珍도 『강목』의 人部 서두에서 마찬가지로의 문제인식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신는다는 것을 밝혔다.⁶¹⁾

이렇듯 당대의 儒學的 가치체계 하에서 학술 작업을 수행했던 본초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人部를 다른 사물 항목과 대등하게 수록하는 것에서부터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관점을 강조하면서도 人部를 가장 뒷부분에 두고자 하였던 모순은, 실제로는 人部를 가능한 한 먼 곳에 두어 다른 사물들과의 불편한 간섭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또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체 유래물을 약물로 쓰기 이전에 다른 약물들을 우선 고려하여 치료법을 찾은 뒤 부득이한 경우에만 고려되도록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닐까? 일련의 배열을 끝이끝대로 보지 않고 儒醫의 ‘不忍人之心’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함묵적인 판단임을 납득할 수 있다.

4. 본초서 속 의학적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

의학적 분류체계는 의학적 해석이나 활용법에 의거한 분류로서 한의학에서 약물이 활용되어 온 방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양한 의학 이론의 존재만큼이나 다양한 분류체계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기원별 분류체계가 그 구성 항목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변이 양상을 보이는 점과는 확

연히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적 분류체계의 대표 유형을 ‘작용별 분류’, ‘氣味별 분류’, ‘병증별 분류’, ‘歸經별 분류’의 네 가지에 ‘복합적 분류’를 더하여 모두 다섯 가지로 크게 구별하였다. ‘기미별 분류’는 약물의 작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氣味論을 활용한 방식으로서 실제로는 ‘작용별 분류’의 세부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귀경별 분류’는 치료하고자 하는 病證의 성질을 변별하기 위하여 歸經 이론을 활용한 방식으로서 실제로는 ‘병증별 분류’의 세부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氣味論과 歸經 이론이 본초학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별도의 분류체계로 설정하였다.

한편, 의학적 분류체계는 하나의 본초서 내에서 ‘주분류방식’으로 채택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된 경우가 더 많다. 예컨대 기원별 분류체계를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경우, 의학적 분류체계를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한 사례가 많다. 또, 하나의 의학적 분류체계 유형을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경우에도 다른 의학적 분류체계 유형을 보완적으로 도입한 경우도 많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본초서들이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경우와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한 경우를 나누어 다양한 의학적 분류체계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분류방식으로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 역사 초기 본초서에서 시작되어 근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 의학적 분류체계를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본초서는 초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明清代에 비로소 대두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출현하는 본초서들을 살펴보면 金元代에 이루어진 학술적 성과가 반영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張元素의 병증 중심 약물 연구 성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張元素의 『의학계원』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본초서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주분류방식으로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에 해당한다.(표1. 참조)

60) 皇甫嵩. 本草發明.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2. “夫天地生物, 惟人為貴, 乃列於草木, 禽獸, 魚蟲之類例之, 爲部已失等倫矣. 其中用人尿糞婦女經帶汗穢不典之物, 甚用人血肉, 人膽, 天靈蓋, 胎骨等以療病, 非仁人之心也. ……非良藥, 又且難得, 或他物可代, 不用可也.”

61)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2925. “李時珍曰, 神農本草, 人物惟發髮一種, 所以別人於物也. 後世方伎之士, 至於骨肉膽血, 咸稱爲藥, 甚哉不仁也. 今於此部凡經人用者, 皆不可遺. 惟無害於義者, 則詳述之, 其慘忍邪穢者則略之, 仍闕斷於各條之下.”

본초서	작용	기미	병증	귀경	복합	비고
醫學啓源(1186)	○					升降浮沈補瀉法
本草集要(1496)			◎	○	○	<中部>: 기원별 분류체계 <下部>: 의학적 분류체계
珍珠囊補遺藥性賦(1501)		○				권1(藥性賦): 寒性/熱性/溫性/平性
丹溪心法附餘古庵藥鑿(1536)			◎	○	○	『본초집요』 축약 및 정리 升降浮沈補瀉法 영향
醫學入門(1575)			◎	○	○	「고암약감」 분류체계 수용 藥性歌, 小註 붙이고 <식치문> 증보
分部本草妙用(1630)	○	○		◎		상위분류: 肝·心·脾·肺·腎 하위분류: 寒·溫·平, 補瀉
藥品化義(1644)	○		○	◎		귀경(肝·心·脾·肺·腎) + 작용(氣·血) + 병증(風·火·濕·燥·寒 및 痰)
藥鏡(1648)		○				
要藥分劑(1737)	○					상위분류: 十劑 / 하위분류: 기원별 분류체계
本草求真(1769)					○	작용과 병증이 결합된 복합적 분류체계 구체적인 활용 방식에 따라 세부 분류 毒物, 食物까지 수록
類經證治本草(1827)				○		상위분류: 十二經脈, 臟腑 귀경별 분류 하위분류: 補瀉·溫·涼(平·散·鎮·蟲·澱)
本草正義[清](1828)	○	○				기미(甘溫類/甘涼類/苦涼類/苦溫類/苦寒類/辛熱類) + 작용(發散類/氣品類/血品類/毒攻類/固澀類)
本草分經(1840)	○			◎		상위분류: 十二經脈, 命門, 寄經 하위분류: 補和攻散寒熱
十劑表(1840)	○			◎		상위분류는 십이경맥, 하위분류는 십제
藥性分類主治(1851-1863)			○		○	「약성주치»: 병증별 분류 「분류주치»: 『본초구진』 분류체계 수용
本草害利(1862)	○			◎		군대에 비유하여 귀경별 분류
本草彙纂(1863)					○	『본초구진』 분류체계 수용
本草二十四品(1866)					○	작용과 병증이 결합된 복합적 분류
醫鑑重磨(藥性歌)(1908)	○					補和熱寒散收通瀉食補
東武遺稿(1882-1900)				○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귀경별 분류 「四象人藥材類»: 병증별 분류

표 3 구분류체계로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대분류)

(1) 작용별 분류체계
‘작용별 분류’는 약물의 고유한 속성에 기인하여 그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로

서, 『醫學啓源·藥類法象』, 『분부본초묘용』, 『藥品化義』, 『요약분제』, 『본초정의[清]』, 『본초분경』, 『十劑表』, 『本草害利』, 『醫鑑重磨』(약성가)가 여기에 해당한다.(표1. 참조)

『의학계원』(1186)은 작용별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적용한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으로 보인다. 「약류법상」에서는 약 105종의 소수의 본초에 대해 張元素가 창안한 升降浮沈補瀉法の 이론에 따라⁶²⁾ 風熱濕燥寒, 升降(成)浮沈, 生長化收藏의 五行 속성을 결합한 ‘風升生’, ‘熱浮長’, ‘濕化成中央’, ‘燥降收’, ‘寒沈藏’의 5개 기준으로 약물을 분류하였다. 이때 風熱濕燥寒은 邪氣를 의미하지 않으며 약물의 작용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⁶³⁾ 작용별 분류체계에 해당한다. 「약류법상」의 升降浮沈補瀉法은 易水學派의 약물 이론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부분의 본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補瀉의 약물 작용을 기준으로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 『분부본초묘용』, 『본초해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분부본초묘용』(1630)은 기본적으로는 五臟 위주의 歸經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구분방식의 하위에서 寒溫平의 氣味에 따른 補瀉의 작용 방향성으로 약물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본초해리』(1862)는 스승인 吳古年の 『本草分隊』의 체계를 본받아 약물의 작용[利]과 부작용[害]을 추가 기술한 본초서⁶⁴⁾인데, 歸經을 대분류에 두었고, 소분류에는 補瀉, 溫涼의 작용의 기준을 두었으며 그 작용의 강도를 다시 猛將·次將⁶⁵⁾으로 구분하였다.

氣分 및 血分이라는 약물의 작용 층위를 기준으로 적용한 경우도 있는데, 『약품화의』, 『본초정의[淸]』가 여기에 해당한다. 『약품화의』(1644)는 肝·心·脾·肺·腎 五臟에 따른 歸經, 風·火·濕·燥·寒 및 痰의 病因, 그리고 氣·血에 따른 작용 층위라는 3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이 병렬적으로 분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氣藥’에는 理氣藥 종류에, ‘血藥’에는 活血祛瘀藥 종류가 주를 이룬다. 『본초정의[淸]』(1828)는 ‘發散類·氣品類·血品類·毒攻類·固澀類’와 같은 補瀉 및 氣·血의 방향성에 따른 약물 작용 방식

을 기준으로 먼저 해당하는 약물을 분류하고, 나머지 약물은 氣味를 기준으로 나누어 두 체계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十劑說은 그 기원에 대해서는 陶隱居설, 徐之才설, 陳藏器설 등 논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약물의 작용을 宣·通·補·泄·輕·重·澀·滑·燥·濕의 10가지로 분류하는 이론⁶⁶⁾으로, 처음에는 개별 약물의 분류기준으로 사용되었다가, 宋代 이후 처방의 작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연역되었다.⁶⁷⁾ 실제로 十劑說을 하나의 구분방식으로 적용한 본초서에는 『요약분제』, 『십제표』가 있다. 『요약분제』(1737)는 十劑를 대분류에 두고 그 하위에 기원별 분류체계를 두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십제표』(1840)는 표제에 표방하였듯 문헌 전체가 표(table)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十二經脈에 대한 歸經을 대분류에 두고 그 하위에 十劑 분류를 두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약물이 수행하는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가 존재한다. 『본초분경』(1840)은 표제에서 표방한 바와 같이 歸經에 따른 분류를 대분류에 두었으며, 각 歸經마다 補和攻散寒熱의 작용에 따라 약물을 세부 분류하였다.⁶⁸⁾ 한국 의서인 『의감증마』(1908)는 수제한 藥性歌를 補和熱寒散收通瀉食補의 작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2) 기미별 분류체계

‘기미별 분류’는 실제로는 ‘작용별 분류’의 세부적인 유형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이를 구분방식으로 적용한 본초서에는 『진주낭보유약성부』, 『분부본초묘용』, 『藥鏡』, 『본초정의[淸]』가 있다.(표1. 참조)

『진주낭보유약성부』(1501)는 사실 「藥性賦」, 「韻

62)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1. “藥有氣味厚薄, 升降浮沈補瀉主治之法, 各各不同.”

63) 신상원. 李東垣의 藥學 活用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18. 31(4).

64) 尙志鈞. 中國本草要籍考.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9. p.382.

65) ‘分隊’라는 제목에서 보듯 歸經에 따른 약물의 분류를 군대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6) 唐慎微.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22. “陶隱居云, 藥有宣通補泄輕重澀滑燥濕. 此十種今詳之. 惟寒熱二種何獨見遺. 如寒可去熱, 大黃朴硝之屬是也, 如熱可去寒, 附子桂之屬是也. 今特補此二種, 以盡厥旨.”

67) 조학준. ‘十劑說’의 변화·발전 과정. 대한한의학회지. 2013. 26(4). p.234.

68) 姚瀾. 本草分經.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2. “凡一經藥一經之藥, 從其同也, 而其功用則各不同, 故又分列補和攻散寒熱六者, 使之亦從其同, 庶令閱者, 依類取用, 較爲便捷.”

語珍珠囊」, 그리고 각각의 '補遺' 부분의 3개 부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저작⁶⁹⁾으로 권1에 해당하는 「藥性賦」에는 寒性·熱性·溫性·平性の 기미별 분류체계가 적용되어 있다.⁷⁰⁾

『분부본초묘용』(1630)은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歸經 체계의 하위에 寒·溫·平의 氣味에 따라 補瀉의 작용을 제시하였다.

『약경』(1648)은 『진주낭보유약성부』와 같이 溫·熱·平·寒의 四氣를 단일한 분류체계로 삼아 약물을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⁷¹⁾

『본초정의[淸]』(1828)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용별 분류체계와 함께 기미별 분류체계를 나란히 운용하고 있는데, 氣味를 결합시켜 甘溫類·甘涼類·苦涼類·苦溫類·苦寒類·辛熱類의 6개 類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3) 병증별 분류체계

'병증별 분류'는 병증별로 주로 활용되는 약물을 구분한 것이기에 이 분류는 임상적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한 문헌 중 병증별 분류를 구분방식으로 활용한 예로는 『본초집요』(下部), 『丹溪心法附餘·古庵藥鑿』, 『의학입문·본초분류』, 『약품화의』, 『藥性分類主治』, 『東武遺稿』가 해당한다.(표1. 참조)

『본초집요』(1496), 『단계심법부여·고암약감』(1536), 『의학입문·본초분류』(1575) 3개 문헌은 하나의 계열로 볼 수 있다. 『본초집요』는 下部의 「藥性分類」에서 병증별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는데, 治氣門·治寒門·治血門·治熱門·治痰門·治濕門·治風門·治燥門·治瘡門·治毒門·婦人門·小兒門의 병증별로 12개 門으로 약물을 분류하였다. 方廣의 「단계심법부여」에 실려있는 「고암약감」은 張元素의 升降浮沈補瀉法을 참조하여⁷²⁾

『본초집요』(下部)의 분류체계를 治風門·治熱門·治濕門·治燥門·治寒門·治瘡門의 6개 門으로 축약하고 약물도 재배치하였다. 『의학입문·본초분류』에서는 「고암약감」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되 통용 약물을 증보하였고⁷³⁾ 각 약물에 대한 藥性歌와 小註를 붙였다.

『약품화의』(1644)는 앞서 살펴본 작용별 분류 항목과 함께 風·火·濕·燥·寒 및 痰의 병인에 따른 병증 분류를 통해 약물을 분류하였다.

『약성분류주치』(1851-1863)는 「藥性主治」와 「分類主治」의 두 부분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문헌인데, 「藥性主治」에서는 111가지 병증에 대한 주치 약물을 분류하여 이를 병증별 분류체계로 볼 수 있다. 초기 본초서에서부터 나타나는 「諸病通用藥」의 체례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의서인 『동무유고』(1882-1900)는 東武 李濟馬의 저작으로 사상의학에서 활용하는 약물에 대한 藥性歌括을 신고 있는데, 「四象人藥材類」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약물의 목록과 정보를 담고 있다.

(4) 귀경별 분류체계

귀경은 傷寒論의 六經에 따른 用藥에서 비롯되어 『천금요방』 및 『小兒藥證直訣』에서 臟腑를 중심으로 한 用藥法이 나옴에 따라 분명해졌으며, 金元 시기 張元素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⁷⁴⁾(표1. 참조)

'귀경별 분류'는 실제로는 '병증별 분류'의 세부적인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본초집요』(下部), 『단계심법부여·고암약감』, 『의학입문·본초분류』, 『분부본초묘용』, 『약품화의』, 『유경증치본초』, 『본초분경』, 『심제표』, 『본초해리』, 『동무유고』가 여기에 해당

69) 王今覺. 《珍珠囊補遺藥性賦》書名研析. 中國中藥雜誌. 2000. 25(11).

70) 권3, 4는 明代 熊宗立이 붙인 補遺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분에는 기미별 분류체계가 적용되어 있어 앞에서 다룬 바 있다.

71) 蔣儀撰. 藥鏡.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1. "編分四卷, 首溫, 次熱, 次平, 次寒, 義方四令."

72) 실제로 治熱門에는 '寒沈藏'을, 治寒門에는 '熱浮長'을 언급하였다.

73) 李梴.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2006. p.153. "依古菴而增以通用."

74)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p.60. "〈傷寒雜病論〉六經分經用藥, 較爲系統地闡述了臟腑經絡與藥物的關係;〈千金要方〉、〈小兒藥證直訣〉倡導的"臟腑定位"的用藥方法, 使藥物與臟腑經絡的關係更爲明晰. ……至金元, 張元素在深入研究前人理論的基礎上, 結合自己的經驗, 明確提出了制方用藥必須引經報使, 從而創立了藥物歸經理論體系."

한다.

『본초집요』(下部), 『단계심법부여고암약감』, 『의학입문·본초분류』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계열로 볼 수 있는데 『본초집요』(下部)에서 대분류인 風·火·濕·燥·寒 5개 門의 하위 소분류에 ‘各經主治藥’을 배치하여 引經의 개념을 폭넓게 확대하였다. 「고암약감」, 『의학입문·본초분류』에서도 이 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十二經脈을 중심으로 귀경별 분류를 제시한 경우와 五臟을 중심으로 귀경별 분류를 제시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十二經脈을 중심으로 한 경우에는 『유경증치본초』, 『본초분경』, 『십제표』가 해당한다. 『유경증치본초』에서는 十二經脈으로 분류한 뒤 여기에 소속되기 어려운 약물들을 다시 經外藥類 항목에 소속시켰다. 『본초분경』은 十二經脈에 命門, 寄經을 추가하여 분류 항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五臟을 중심으로 한 경우에는 『분부본초묘용』, 『약품화외』, 『본초해리』, 『동무유고』가 해당한다. 『분부본초묘용』은 주분류방식의 대분류에서 肝·心·脾·肺·腎 五臟으로의 歸經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兼經部 항목을 추가하여 어느 하나의 臟에만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경우도 포괄하였다. 『본초해리』는 五臟과 함께 六腑를 더하여 분류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제마의 『동무유고』 중 본초에 관련된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사상의학에서 제시한 脾藥·肺藥·腎藥·肝藥의 四臟으로 약물의 주치 경향성을 분류하였다.

(5) 복합적 분류체계

앞의 작용·기미·병증·귀경 분류 중 두 가지 이상의 의학적 기준이 불규칙하게 결합하여 특수한 작용 경향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경우를 ‘복합적 분류’로 설정하였는데, 『본초집요』(下部), 『단계심법부여고암약감』, 『의학입문·본초분류』, 『본초구진』, 『약성분류주지』, 『본초취찬』, 『本草二十四品』 등이 해당한다.(표1. 참조)

복합적 분류체계의 항목들은 매우 구체적인 병증 또는 증후에 대한 치료 작용을 지시하는 임상적 표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⁷⁵⁾ 또한 대분류와 소분류의 구조를 설정한 경우, 대분류 항목과 소분류 항목 사이의 관계 역시 이론적 맥락에서 관련성 높은 유기적인 구성을 보여준다.⁷⁶⁾ 따라서 복합적 분류체계는 이미 임상에서 축적된 많은 경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체계화된 변증론치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초분류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실상 수준 높은 임상 用藥 매뉴얼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본초집요』(下部)의 첫 번째 대분류인 治氣門의 소분류를 보면 補氣清氣溫涼藥·溫氣快氣辛熱藥·行氣散氣降氣藥·破氣消積氣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氣病의 범주에서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치료적 특성을 기미, 작용의 개념을 결합하고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본초구진』(1769)의 사례를 보면 우선 補劑·收斂·散劑·瀉劑·血劑·雜劑·食物과 같이 작용을 중심으로 대분류를 제시하였으며, 그 하위에는 기미, 작용, 병증의 개념을 불특정하게 결합하여 복합적 구성 항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대분류 散劑 항목 하에는 散寒·驅風·散濕·散熱·吐散·溫散·平散을 제시하여 병인, 기미, 작용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대분류 항목과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본초이십사품』(1866)은 대소분류의 층위구분 없이 총 24개의 복합적 분류 항목을 나열하였다. 각 항목들은 앞선 복합적 분류체계의 사례들에 비해 다양한 의학적 개념을 더욱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陰陽·精神·氣血·汗·耳目·筋骨 등 생리적 개념, 風寒·暑濕·燥의 六淫 및 痰·瘀·血 등 병리적 인자, 滯·蟲·閉·淋·瘡·痢·痞·蒸·斑·痛·癰·痔 등 임상 증후 표현이 消·散·理·開·導·泄·滌·除·清·補·調·和·存·潤·斂·澀·軟·堅·透·安·定 등의 작용 표현과 함께 경우에 따라 불특

75) 예컨대 『본초집요』의 ‘骨肉分勞療發熱主治藥’, 『본초이십사품』의 ‘除濕通淋’, ‘透疹化斑’과 같은 것들이다.

76) 예컨대 『본초집요』에서 대분류 ‘治氣門’ 하위에 ‘補氣清氣溫涼藥·溫氣快氣辛熱藥·行氣散氣降氣藥·破氣消積氣藥’을 두거나, 『본초구진』에서 대분류인 ‘補劑’ 하위에 ‘溫中平補補火·滋水溫腎’의 소분류를 두어 상하위 간 이론적으로 유기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정하게 결합하였다. 예컨대 消散風寒, 活血消瘀과 같이 일반적인 병인에 대한 치료 작용뿐만 아니라 分經解表와 같이 심도있는 病機 인식을 토대로 제기 되는 치법 개념도 있으며, 理氣導滯, 化食殺蟲, 除濕通淋, 熄風蠲痛과 같이 병인과 증후 표현의 인과관계를 표현한 경우, 透疹化斑, 消癰斂痔과 같은 병증에 대한 치료 작용만을 표현한 경우, 安神定志, 健骨強筋, 聰耳明目과 같이 병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효능을 표현한 경우가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들과 같은 복합적 분류체계는 본초학 역사의 후기, 근대에 가까운 시기에 주로 나타나고 있어 후대로 갈수록 본초분류체계에 임상적 활용을 위한 목적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현대 본초학 교재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⁷⁷⁾

2) 보완분류방식으로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

각 본초서에는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분류체계 이외에도 보완분류방식을 겸하여 도입한 경우가 매우 많으며, 특히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된 분류체계는 대부분 의학적 분류체계에 해당한다. 이는 아마도 본초학 지식을 임상 현장에 연계하여 활용하는데 있어 '과연 기원별 분류체계만을 통해서, 또는 한 유형의 의학적 분류체계만을 통해서 충분한 실용성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醫家 혹은 本草家들의 고민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러 본초서에서 보완분류방식으로 취한 의학적 분류체계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보완적인 병증별 분류체계의 사례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된 의학적 분류체계 중 현실과의 접점에 가장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은 병증별 분류체계이며, 특히 병인 수준이 아닌 개별 증후 수준에서 본초를 분류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초경집주』를 시작으로 초기 본초서들에서 나타나는 '諸病通用藥'류 분류체계이다.⁷⁸⁾ 이 분류체계는 수십가지 병증의 유형을 나열하면서 해당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본초들을 소속시키는 방식인데, 80여종의 병증이 기재된 『본초경집주』⁷⁹⁾로부터 『신수본초』, 『가우본초』, 『증류본초』 등 '本草'의 전통을 계승한 정통본초서들의 앞부분인 「序例」 부분에 자리잡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병증 항목 및 약물의 증보가 이루어졌다.⁸⁰⁾⁸¹⁾

孫思邈 『천금익방』의 「用藥處方」門에도 이와 같은 체제로 '治風'으로부터 모두 65종의 병증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약물을 분류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諸病通用藥'류 분류체계가 가장 크게 집대성된 것은 역시 『강목』의 「百病主治藥」에서인데 李時珍은 기존 '諸病通用藥' 체계가 소략한 점을 비판하며⁸²⁾ 총 113종의 병증을 대분류로 삼고 그 하위에는 병인병기, 약물이 수행하는 治法 등으로 세분화하였다.⁸³⁾ 예컨대 '火熱'의 하위 항목에는 升散, 瀉火,

77) Jang(2008) 등은 『본초구진』과 현대 본초학 교재의 분류체계 및 소속 약물을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p.454.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Bonchogujin』, …… provided momentum for the shift to categorization by efficacy as now seen in the first and in current editions of herbology textbooks. The general classification of 『Bonchogujin』 is such that it can cover the subcategories of the first and current editions of herbology textbooks.")

78) 季文達. "諸病通用藥"淵源問題考究. 中華中醫藥雜誌. 2021. 36(10).

79) 연구에 따라 83종, 81종 등 집계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80종으로 집계되었다.

80) 高新顏, 張冰, 吳嘉瑞. 《證類本草》"諸病通用藥"來源及藥性特征. 中醫研究. 2008. 21(5).

81)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p.31. "《本草經集注》列風眩、傷寒、消渴、嘔吐等 83種. 《新修本草》治陶弘景之分類列而增補藥物. 宋代《嘉右本草》將病症增至92項, 其中出汗、止汗、下氣已與主治不同. 《本草綱目》百病主治藥, 共分出113大類, 其下再二級分項."

82)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4. "古本百病主治藥, 略而不切, 王氏集要, 祝氏證治, 亦約而不純. 今分病原列之, 以便施用, 雖繁不紊也."

83) 謝海洲, 馮興華. 試論《本草綱目》中"百病主治藥". 中醫藥研究雜誌. 1986. 1. pp. 18-19.

緩火, 滋陰 등 治法으로 구별하였고, ‘霍亂’의 하위 항목에는 濕熱, 寒濕, 積滯 등 병인으로 구별하였다. 王綸의 『본초집요』 체례를 따라 六淫 하위에는 ‘各經火藥’ 등 引經의 개념도 도입하였으며, 소속된 각 약물에는 기원별 분류체계를 명시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간단한 복용법도 附記하였다. 사실상 『강목』이라는 문헌의 활용 매뉴얼이자 임상 用藥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초휘』에서도 『강목』 「百病主治藥」을 일부 수정하여 실었다.

『신농본초경소』의 「序例」의 <諸病應忌藥總例>에서도 陰陽表裡虛實門, 五臟六腑虛實門, 六淫門, 雜證門, 小兒門 등으로 세분화하여 치료를 위해 활용할 약물과 금기해야 할 약물을 대대적으로 분류하였다.

많은 본초서에서 보완분류방식으로 준용한 병증별 분류의 또다른 연원으로는 張元素의 작업을 들 수 있는데, 『의학계원』 「主治心法」 아래에 <隨證治病用藥>, <用藥凡例>, <解利外感> 등을 실어 병증별 用藥을 위주로 본초를 분류하였다. 이후 이 작업은 李杲, 王好古 등 易水學派에 의해 승계되어 『당약본초』에 정리된다.

단, 張元素의 작업의 경우 본초 목록 전체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 이미 특정한 의학적 관점 하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장 알맞게 수행할 수 있는 약물들을 취사선택하여 배치한 것으로, 張元素 및 그로부터 기인한 易水學派의 의학적 사상이 분류된 약물들과 긴밀하게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히 좁아보이는 취사선택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후대의 대부분의 본초서⁸⁴⁾의 序例 부분에 보완분류방식으로, 또는 일종의 본초 총론의 개념으로 실리게 된다.

이후 나타나는 『만병회춘』의 「諸病主藥」이나 『약성분류주치』의 「藥性主治」, 『본초구진』의 「六淫病症主藥」과 같이 병증별 분류가 보완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위의 두 가지 연원으로부터 변화를 상충에 맞게 수용한 결과로 보이며, 해당 본초서를 긴밀하게 요약해주는 역할과 동시에 用藥 매뉴얼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4) 본문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2) 보완적인 장부별 용약 분류체계의 사례

臟腑에 따른 用藥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는 한편으로는 병증별 분류와 유사하며 귀경별 분류와도 유사하나, 臟腑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체계가 제기되는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나므로 이를 따로 분류하였다.

장부별 용약 분류체계의 연원도 역시 張元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가 『황제내경소문』의 「藏氣法時論」 및 運氣篇을 중심으로 臟腑에 따른 用藥法을 제시한 것에서 기인한다. 『의학계원』 「主治心法」의 <五臟補瀉法>, 그리고 「用藥備旨」의 <藏氣法時補瀉法>⁸⁵⁾은 모두 『소문·장기법시문』의 五臟苦欲補瀉 이론을 따라 실제 약물을 분류한 사례이다.

이와 함께 수록된 <去臟腑之火>⁸⁶⁾는 장부별로 나타나는 火邪를 제거하는 약물을 분류한 것이며, <各經引用>⁸⁷⁾은 장부별 引經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부분으로 李杲를 통해 ‘引經報使’로 계승되며 약물이 추가된다.

이러한 장부별 용약 분류체계 역시 이후의 수많은 본초서에서 <序例> 및 총론 부분에 전제하거나 일부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張元素의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이하 『用藥式』)⁸⁸⁾은 완성도 높은 辨證論治 체계로도 볼 수 있으나, 하나의 본초분류체계의 관점에서 다룰 수도 있다.⁸⁹⁾ 현재 이 책은 초기 판본은 전하지 않으며 『강목』에 수록된 것이 주요 판본 중 하나인데, 본초서에 실려 전한다는 사실 자체도 역시 『用藥式』의 성과가 하나의 본초분류체제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用藥式』도 역시 여러 본초서에 실려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로 『강목』을 계승한 『본초

85)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86)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87)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88)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89) 이상협, 『臟腑虛實標本用藥式』에 나타난 藥物 運用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3, 36(1), p.46. “그가 저술한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은 주로 『靈樞經脈』편에 나오는 是動所生病의 내용과 『素問至真要大論』 편에 나오는 十九病機를 중심으로 하여 병증을 정리하였는데, 五臟六腑를 綱領으로 해서 그 本病標病을 서술하고, 虛實寒熱標本을 중심으로 분류한 다음에 瀉法補法清法溫法散法 등의 治法을 세부 목록으로 해서 관련 藥物을 분류한 것이다.”

회언], 『본초회], 『본초회진』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외에 『본초구진』 「臟腑病證主藥」에서도 장부별 용약을 기준으로 한 보완적 분류체계를 제시했으며 『본초회찬』에서 이를 다시 수록하였다.

(3) 보완적인 작용별 분류체계의 사례

작용별 분류체계 중 본초학술사 상 가장 연원이 깊은 것은 十劑說이라고 할 수 있다. 十劑說은 대부분의 정통본초서의 <序例>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대 본초서에서도 十劑說을 수록할뿐만 아니라 十劑의 보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중요도에 비해 의외로 실제로 十劑를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하여 본초를 전면적으로 분류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강목』이나 『신농본초경소』에서 논의를 확장하면서 十劑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예시 약물을 분류하였을 뿐이다.⁹⁰⁾

十劑 분류체계를 보완분류방식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경우는 『본초비요』, 『본초종신』이다. 『본초비요』(1683)는 汪昂의 저작인데, 汪昂은 약물의 설명에 있어 병증과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약리를 쉽게 설명하여 실용성을 추구하는 임상가의 독자들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았던 의기이다. 이러한 汪昂의 기조에 따라 『본초비요』에서는 十劑에 따른 분류가 담긴 篇章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약물의 조문 앞에 眉批(細註)를 두어 十劑에 따라 해당 약물을 분류하고 함께 약물의 핵심을 요약하여 제시했다.⁹¹⁾ 汪昂에게 있어 十劑說은 약물의 임상적 활용 방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분류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十劑에 의한 약물 분류 연

구 결과를 처방에 대한 분류로 확장하여 『의방집해』의 처방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⁹²⁾ 吳儀洛의 『본초종신』은 이와 같은 『본초비요』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약물의 수를 증보한 책으로 역시 각 본초 조문 상단의 眉批 부분에 十劑 분류를 기재하였다.

앞서 살펴본 『본초분경』 소분류에서의 補和攻散寒熱, 『본초구진』에서의 補收散瀉血雜, 『의감중마』에서의 補和熱寒散收通瀉 등의 분류체계는 모두 약물의 작용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서 十劑說의 관점을 변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III. 考察

1. 본초학과 본초분류체계의 변천

1) 기원별 분류체계의 지배

기원별 분류체계는 초기 본초서에서부터 출현하여 근대에 출간된 본초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본초서에서 주분류방식으로 채택되어 왔다. 이 분류체계가 본초학의 초기부터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시기에 나타난 본초학의 특징과 기원별 분류체계의 특성을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초학의 초기 시기는 이른바 ‘採藥’의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神農이 스스로 백 가지 독초의 맛을 보았다는 설화가 상징하는 바도 이와 맥락이 통하며, 야마다 케이지는 채약자들이 본초학을 일으켰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⁹³⁾ 채약자들의 활동은 약물을 감별하고 채취하는 생산 단계에 해당하

90) Jang 등은 十劑說에 따른 분류체계가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十劑說을 주분류체계로 택한 『요약분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p.452.) 그러나 『요약분제』 이외에도 『십제표』와 같은 본초서도 있고 보완 분류방식으로 시야를 넓히면 조금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91) 汪昂. 本草備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3. “[校注說明] 首先, 該書眉批欄用寥寥幾個字, 突出最主要功效。”

92) 汪昂은 자신의 저서인 『본초비요』와 『의방집해』가 상보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임을 스스로 밝혔다.(汪昂. 本草備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2. “是以特著此篇, 兼輯醫方集解一書, 相輔而行, 篇章雖約, 詞旨詳明, 攜帶不難, 簡閱甚便, 倘能人置一本, 附之篋笥, 以備緩急, 亦衛生之一助”)

93) 야마다 케이지 저, 윤석화·박상영 역. 중국의학의 기원. 광주. 수퍼노바. 2016. p.212. “약물 채취자들은 …… 방사의 사상적 영향 하에 그 지식을 정리·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약물 지식과 기술을 내걸고 방술사의 세계에 한 무리로 편입하였다. 채약자에서 본초가가 된 것이다. 그들이 획득한 本草待詔라는 신분은 그 증거이다.”

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점차 약물의 범주를 넓혀가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본초학 초기의 주요 학술적 과업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기원별 분류체계가 이러한 시기 바로 뒤에 나타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⁹⁴⁾

따라서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난 본초의 대대적인 증보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본초경』로부터 『증류본초』에 이르기까지 정통본초서에서 수록한 본초의 수는 『본초경』 365종, 『본초경집주』 730종, 『신수본초』 844종, 『본초습유』 977종, 『가우본초』 1082종 『증류본초』 1746종이며, 이후 明代의 『본초품휘정요』에 1821종, 『본초강목』에 1892종이 수록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분류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본초경집주』에서 玉石·草木·禽獸·果菜·米穀으로 나뉘었던 것이 『신수본초』에서는 蟲魚部와 有名無用이 추가되고 기존 草木과 果菜·米穀이 草木 및 果菜·米穀 각각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우본초』에서는 草部의 하위에 上·下의 세부 구분이 생겼고, 『증류본초』에서는 人部가 새로 생기고 禽獸部가 분할되었으며 『본초도경』에서 새로 추가된 범주를 수록한 2개의 部가 추가된다.

『본초품휘정요』에서는 항목의 틀에는 변화가 없으나 草部를 上·中·下의 3부로, 木部는 上·下의 2부로 다시 분할하였다. 『본초강목』에 이르러서는 水部·火部·土部, 服器部를 새로 도입하고 魚部가 없애는 대신 鱗部·介部의 2개 部를 두었으며, 각 대분류[部]의 하위에 소분류[類]를 두었다.

이후로는 더 이상의 새로운 분류 항목의 도입이나 세분화가 나타나지 않고, 본초서에 수록된 본초의 수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94) 과거의 의사들은 약물의 채취와 가공의 직역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기원별 분류의 중요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朱妹, 王玉芳. 論歷代本草著作之中藥分類方法.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2. 14(10). p.158. “推測古代醫家常兼采藥、制藥、用藥, 故比較重視藥物的自然屬性, 因此這種分類方法持續了較長的時間.”)

이러한 과정을 보면 기원별 분류체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본초의 증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수량의 본초를 상당한 체계성을 갖추고 세분화하여 분류해내는 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의학적 분류체계의 대두

의학적 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기원별 분류체계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점이다. 그러나 보완분류방식까지 시야를 넓혀보면 이미 『본초경집주』에서부터 ‘諸病通用藥’의 방식이 나타나 임상 用藥에 관련된 분류체계를 모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諸病通用藥’의 방식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보되며 특히 『본초강목』에서 ‘百病主治藥’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증보되었다. 이후에도 『만병회춘』, 『약성분류주치』, 『본초구진』 등에서도 같은 방식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기원별 분류체계가 주분류체계로 채택된 본초서에서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되어 부족한 임상적 실용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 볼 때, 본초학 초기의 본초서에서부터 의학적 분류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학적 분류체계의 역사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번곡점은 張元素가 『의학계원』에서 약물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초학의 역사에서 張元素가 갖는 선구자적인 위상은 그에 대해 “의학의 원리를 크게 발양시킨 사람은 『靈樞』, 『素問』 이래로 한 사람(張元素)일 뿐이다.(大揚醫理, 靈素之下, 一人而已.)”라고 말한 李時珍의 평가를 통해 대변된다.⁹⁵⁾ 그의 저작인 『의학계원』에는 약물을 升降浮沈補瀉法을 기준으로 나는 「약류법상」뿐만 아니라 「主治心法」〈隨證治病用藥〉, 〈用藥凡例〉, 〈解利外感〉, 〈五臟補瀉法〉, 「用藥備旨」〈臟氣法時補瀉法〉, 〈去臟腑之火〉, 〈各經引用〉 등의 다양한 목적의 본초분류방식을 담고 있으며, 『의학계원』 밖에도 완성도 높은 변증론치 체계를 담고 있는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도 있다.

95)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9.

후대의 수많은 본초서의 총론 부분에서는 여기서 제시된 張元素의 다양한 본초분류방식을 전제하거나 일부를 증보하여 보완적인 본초분류체계로 활용하거나 약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활용하였다.

張元素를 지나 明清代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이 분류체계를 적용한 다양한 본초서들이 출현하게 된다.⁹⁶⁾⁹⁷⁾ 이 시기에 의학적 분류체계를 구분방식으로 채택한 본초서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張元素를 비롯하여 金元代의 名醫들에 의해 병증과 약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면서 본초를 논할 때 반드시 病證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각 약물에 대해 十劑 분류를 적용한 『본초비요』에서는 “『본초경』에 주석하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병증에 대해 주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병증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는데 약성을 어디에 두겠는가?”⁹⁸⁾라고 하였다. 또 『本草彙』에서도 病機를 변별하지 못하면 藥性을 활용할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⁹⁹⁾

또 하나의 원인은 기존 본초서들에서 본초의 대대적인 증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원별 분류체계가 가장 지배적인 본초분류가 되면서 임상적 실용성에 대한 아쉬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대해진 본초 목록은 그 자체로 상황에 맞는 용약의 선택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나 의학적 관점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 및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지 못하여 통용되지 않는 약물들이 점차 늘어나 목록에 빈틈이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 주지하듯, 許浚이 『동의보감』 「집례」를 통해 ‘本草’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¹⁰⁰⁾이 정확히 여기에 부합한다.¹⁰¹⁾¹⁰²⁾ 뿐만 아니라 병증 및 약성에 대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원별 분류체계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¹⁰³⁾¹⁰⁴⁾

明清代에 출현한 의학적 분류체계를 기미, 작용, 귀경, 병증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제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층위의 개념이 결합한 복합적 분류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복합적 분류

96) 李保傑, 柴清軍. 中藥的分類探討.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09. 7(4). p.10. “尤其是明、清以來, 醫藥學家們相繼總結了不少臨床實用的功效分類方法。”
97) 의학적 분류체계가 대두된 까닭으로 사회적 의료체계의 완비에 따라 약물의 채취 및 가공에 관련된 역할은 분업화되면서 약물의 기원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된 것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朱姝, 王玉芳. 論歷代本草著作之中藥分類方法.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2. 14(10). p.158. “功效分類法之所以替代了自然屬性分類法成爲主要方法, 應爲後世醫療體系的完善, 醫家采藥、製藥、用藥已經完全分開, 因此藥物的自然屬性已經不作爲需要掌握的重點內容”)
98) 汪昂. 本草備要. 北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注本草者, 當先注病證. 不然, 病之未明, 藥於何有.”
99) 郭佩蘭 輯. 本草彙.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1. “蓋病機不辨, 將藥性安施”

100)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69. “但本草浩繁, 諸家議論不一, 而今人不識之材居其半. 當撮取方今行用者, 只載神農本草經, 及日華子註, 東垣丹溪要語.”
101) 『本草彙』에서는 편리한 활용과 휴대성을 표방하였는데, 기존 본초서에서 본초의 수가 크게 증가한 사실을 열거하면서 본서에서는 470여종으로 그 수를 요약하였음을 강조하였다.(郭佩蘭 輯. 本草彙.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p.1-2. “是編用便取攜, 非資博識. 《本經》分上中下品, 計藥三百四十七種, 代增廣至一千五百十八種, 《綱目》又增三百七十四種. 茲擇切要緊關者, 約登四百七十有奇, 餘未編入, 亦本王節齋《集要》之義, 覽者恕其固陋云.”)
102) 『본초정요』에서도 본초의 수가 너무 많은 반면 약성에 대한 설명이 약소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包來發 主編. 李中梓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 『本草徵要』 “本草太多, 令人有望洋之苦, 藥性太少, 令人有遺珠之憂”)
103) 예컨대 『요약분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로하였는데, 기존 기원별 분류체계로 인하여 의사들이 약성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으며 이에 制方과 用藥에 혼란이 생겼으므로, 임상에서의 실용을 위해 약물마다의 약성과 작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田思勝 主編. 沈金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63. 『요약분제』 「自序」 “宜之才以十劑爲藥之大體, 靡所遺失也, 自神農本草經, 歷代藥性書, 悉以草木金石等依類相次, 讀者幾忘十字之義, 並忘藥有此十種之性, 宜其制方用藥, 相反相戾, 錯雜以出之也. 余輯是書援據十劑以分門類, 非敢好異, 欲閱者曉然於藥之各有其性, 因各有其用, 庶臨症時可無背云爾.”)
104) 『본초정의[清]』에서도 기존 본초서의 기원별 분류체계가 번잡하여 너무 보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의 저서에서는 기원별 분류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攻補의 작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張德裕 輯. 本草正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21. p.1. “本草爲載藥之書, 古人以草木金石禽獸蟲魚別類分門, 編述治療, 種數頗繁, 說不臻一. 觀者往往朱紫混淆, 眉目不清. …… 茲余刪其叢冗, 究其專一, 不以藥品分門, 而以攻補歸例, 比類而陳, 易于觀曉. 其有不類者, 取寒熱性同, 亦總爲差次.”)

체계의 연장선에 현대의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기원별 분류체계와 의학적 분류체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양자가 지닌 문제의식이 상호 보완하기도 하고 상충하기도 하면서 본초학의 역사를 펼쳐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분류체계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관련된 지식들은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두 체계 사이에 우열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두 분류체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맥락을 충실하게 살펴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현대의 본초분류체계가 가진 문제점 및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본초분류체계의 특성

1) 본초분류의 의의 및 본초분류체계의 분화

‘분류’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공통점을 기준으로 묶어내고 차이점을 기준으로 구별함으로써 이름을 붙여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荀子』 「正名」에서는 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물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감각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사물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통용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⁵⁾ 그런데 사물에 대한 인식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지는데,耳目口鼻의 감각기관[五官] 층위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구별 작용[異],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心] 층위에서 일어나는 인지의 작용[徵知]이라고 설명하였다.¹⁰⁶⁾

이 설명에 근거해 보면,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

지하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층위에서 모두 적절한 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감각 차원에서는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각을 느껴야 하며, 마음에서는 그것의 특성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여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⁷⁾ 이를 통해 인간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이 다른 여러 사물들과 비교를 통해 드러내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사물에 알맞게 대응하거나,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루어보면 ‘본초분류’가 갖는 의의란, 한의학에서 병증의 치료를 위해 활용하는 본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본초가 다른 본초와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 일의 목적에 맞게 본초를 적절히 다루어내는 데에 분류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본초학 교과서에서는 本草學에 대해 “本草에 대한 基原採集炮製歸經性味效能主治禁忌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¹⁰⁸⁾고 하였다. 이 정의를 설명한 본초학 고유의 영역은 다시 ‘基原採集炮製’에 이르는 영역, 그리고 ‘歸經性味效能主治禁忌’에 이르는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초학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름들에 대한 서로 다른 분류체계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두 가지 영역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의 차이만큼이나 각 분류의 목적과 분류체계의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기원별 분류체계의 특성

기원별 분류체계는 바로 본초학 고유의 영역 중 ‘基原採集炮製’에 이르는 영역을 위한 분류체계에

105) 荀子集解.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605&titleId=C467 “凡同類同情者, 其天官之意物也同, 故比方之疑似而通, 是所以共其約名以相期也.”

106) 荀子集解.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605&titleId=C468 “形體色理, 以目異, 聲音清濁調芋奇聲, 以耳異, 甘苦鹹淡辛酸奇味, 以口異, 香臭芬鬱腥臊漏唐奇臭, 以鼻異, 疾養滄熱滑澁輕重, 以形體異, 說故喜怒哀樂愛惡欲, 以心異. 心有徵知, 徵知, 則緣耳而知聲可也, 緣目而知形可也.”

107) 荀子集解.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605&titleId=C476 “然而徵知, 必將待天官之當簿其類然後可也. 五官簿之而不知, 心徵之而無說, 則人莫不然謂之不知, 此所緣而以同異也. 然後隨而命之, 同則同之, 異則異之.”

108) 본초학공동교재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 영림사. 2020. p.21.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基原採集炮製’의 영역이란 곧 약물 同定 및 약재 생산의 과정인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어디에서 유래하며 어떠한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원별 분류체계는 약물의 채취 및 가공과 관련된 영역의 문제의식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초기 본초학을 일으켰던 채약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약물이 그 이름을 가진 약물이 맞느냐’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名實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학적인 관심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기원별 분류체계의 원형도 박물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가 ‘詩經을 읽으면 鳥獸草木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¹⁰⁹⁾고 한 이래 鳥獸草木이 자연물에 대한 기초적인 범주 개념으로 다루어졌으며, 동아시아 박물학의 토대가 된 저작인 『爾雅』는 총 19편 중 마지막 7편에서 “鳥獸草木”의 분류를 계승하고 蟲, 魚, 畜 3류를 더하여 완성도 있는 분류 체계를 형성하였다.¹¹⁰⁾ 이후 본초학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광물성 약물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草木을 穀菜果까지 확장시킨 『본초경집주』의 기원별 분류 방식¹¹¹⁾의 채택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약물의 증보를 거쳐 李時珍이 집대성하여 『본초강목』의 완성도 높은 분류 체계를 형성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¹¹²⁾

『본초강목』의 분류체계가 완비되는 과정에서도

박물학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李時珍이 밝힌 인용서 목록인 <引據古今醫家書目>을 보면 널리 알려진 唐代의 類書인 徐堅의 『初學記』가 기재되어 있다.¹¹³⁾ 『본초강목』 기원별 분류체계의 핵심 특징이 되는 항목인 器用部, 鱗介部가 『初學記』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어,¹¹⁴⁾ 기존 본초서 전통에 없던 항목을 박물학으로부터 도입하게 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기원별 분류체계가 박물학과 마찬가지로 외부 세계의 자연적 범주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가장 큰 특징은, 자연적 범주는 분명하고 잘 변하지 않아서 객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원별 분류체계는 약물의 분류가 쉽고 명확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류 자체도 매우 안정성이 높다.¹¹⁵⁾

또 이러한 단순하고 명확한 특성에 기반한 운영상의 유연성도 이 분류체계의 특징이다. 기원별 분류체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류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하여도 약간의 조정을 가하면 전체적인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초의 대대적인 증보 과정에서도 확장된 본초 목록을 수월하게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 초기 본초의 증보 과정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분류체제로 기능하였으리라 생각되며, 동시에 약물의 의학적

109) 論語集註.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1h0301&titleId=C443
 『논어』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110) 이충구 외 3인 옮김. 이아주소. 서울. 소명출판. 2008. p.9.
 111) 汪何. 五行與《本草綱目》礦、植物藥分類. 中醫藥學報. 1994. 2. p.14. “本草學從《神農本草經集註》開始就在草木之外加上了根據其用途而建立的穀菜果等類, 這是因為本草學作爲一門實用知識, 突出藥用部分是其實用的需要.”
 112) 韓悅. 清代綜合本草著作的藥物分類方法及編撰體例研究. 上海中醫藥大學碩士畢業論文. 2020. p.4. “此後, 本草學中沿用了此種思路, 陶弘景在《本草經集注》中……增加了對於礦物的認識. ……至李時珍《本草綱目》達到了集大成的地位.”

113)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2.
 114) 器用部(권25)·服食部(권26)·寶器部(附草部)(권27)·果木部(권28)·獸部(권29)·鳥部·鱗介部·蟲部(권30)(徐堅 等奉勅撰, 安國 校刊. 初學記. 安氏桂坡館. 153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15) 기원별 분류체계의 장점에 대해 Jang 등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서 중복 배치의 우려가 적으며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宋詠梅도 구분의 용이하고 안정적이라고 하였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p.448. “This classification has been widely used as it is just as readily accessible to non-specialists as it is to specialists owing to the fact that its criterion is clear and objective and that it has no danger of reiteration.”,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p.60. “由於藥物的自然屬性穩定而易於區分,”

속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뚜렷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 특수한 콘텐츠를 분류하는 경우에도 유연성을 발휘하여 최소한의 체계성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초학 초기 본초서에 수록된 본초의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의 추세를 보이는데 『본초경』에서 『강목』에 이르기까지의 증보 과정의 모든 정통본초서에는 기원별 분류체계가 구분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분류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분류 항목도 지속적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약물 목록을 증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拾遺’라는 이름이 붙은 본초서(『본초습유』, 『본초강목습유』)에서도 기원별 분류체계를 채택하였고,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補遺’ 부분을 둔 경우(『진주낭보유약성부』, 『본초회』), 특정 지역이나 해외에서 유입된 새로운 본초를 분류하는 경우(『해약본초』, 『전남본초』)도 기원별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또 『신수본초』를 증보하였음을 표방한 『重廣英公本草』라는 본래 이름을 가진 『축본초』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구분류체계만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모호한 성격의 본초들을 실어야 하는 경우(『분부본초요용』, 『유경증치본초』), 食治門을 두었거나 食物本草書에 해당하는 경우(『천금요방식치』, 『음선정요』, 『본초약안·식물본초약안』, 『식품집』, 『의학입문-본초분류식치문』, 『식감본초』, 『본초회찬일용채물』) 등은 의학적 분류체계를 구분방식으로 채택한 경우라도 食治本草 관련 부분에서는 기원별 분류체계를 택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유연성과 범용성 때문에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술사의 초기부터 출현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본초분류체계로서 채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록 기원별 분류체계가 높은 객관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일정한 수준에서 편집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하게 된다. 분류체계 내에서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물 범주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맺음이 일어나는데, 각 범주의 특성에 따라 가치를 매기고 그에 맞는 관계를 부여하여 정위시키는 과정에는 반드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의하여 분류 항목의 취사선택 및 약물의 배속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원별 분류체계에 내포된 분류자의 철학, 세계관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본초서의 분류체계에서 玉石部가 강조된 점, 植物本草書에서 米穀部·果菜部가 강조된 점, 『본초집요』로부터 草部를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난 점이나 다른 항목과의 관련성 속에서 人部의 배열이 섬세하게 안배된 점은 사물의 범주에 대한 인간의 가치관이 강하게 반영된 사례들이다. 또한 『강목』이나 『동의보감탕액편』에서 水火土石 등 무생물 항목에 대한 배열을 고려함에 있어 우주 생성의 문제까지 소급한 것은 외부세계의 생성 및 운영 원리를 토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추구하려 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원별 분류체계도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약물이 속한 사물 범주, 기원, 물질적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줄 수 있는 반면, 약물의 성미, 귀경, 작용, 병증 치료 등에 대한 정보는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¹¹⁶⁾ 또한 증보된 약물을 정합적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훌륭하게 기능하지만, 비대해진 본초 목록 속에서 병증에 적절한 用藥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임상 활용에서의 유용성, 편의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또다른 분류체계를 필요로 한다.

3) 의학적 분류체계의 특성

의학적 분류체계는 바로 본초학 고유의 영역 중 ‘歸經·性味·效能·主治·禁忌’에 이르는 영역을 위한 분류체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歸經·性味·效能·主治·禁忌’의 영역이란 곧 약성 이해 및 병증에 대한

116) 呂雲霞 등. 中藥傳統分類與命名文化的認知圖式分析. 江蘇衛生事業管理. 2017. 28(6). pp.96-97. “自然屬性分類有助於了解和把握中藥的自然屬性, 如科屬、形狀、總類等, 但無法掌握藥物的性味和治療作用。”

用藥의 과정이므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약물이 사람의 몸을 만나 어떠한 작용을 하여 어떠한 병증을 치료하는가’하는 의학적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학적 분류체계는 실제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고민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이는 곧 임상적 의 문제의식이다. 임상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의식은 ‘병증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위해 어떠한 약물을 활용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따라서 의학적 분류체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병증을 이해하기 위한 생리학, 병리학적 이론 및 지식의 심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당한 시간 동안 축적된 약물의 속성에 대한 지식 및 用藥 경험이 이론체계와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병증과 약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양자가 긴밀하게 결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므로, 본초학 발달 과정에서 의학적 분류체계는 필연적으로 기원별 분류체계에 비하여 후행한다고 볼 수 있다.¹¹⁷⁾

의학적 분류체계에서는 약물과 병증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선에 의해 점차 ‘작용’, ‘기미’, ‘병증’, ‘귀경’ 등의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본초를 활용하는 다각도의 임상적 관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여러 분류 기준이 하나의 분류체계 내에 병렬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본초집요』, 『본초구진』, 『본초이십사품』 등의 본초서와 같이 병인·병기·증후·치료작용 등의 다양한 층위가 불규칙하게 결합하여 분류 항목을 세분화한 ‘복합적 분류체계’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 의학적 분류체계는 임상적 실용성을 가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본초서의 지나치게 많은 본초의 수를 임상적 실용성을 거두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대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常用 약물을 수록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의학적 분류체계의 분류 취지에 부합하여 실

제 임상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약물들을 위주로 수록함으로써 본초의 수를 축소하려 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본초강목』 이후의 본초서 중 의학적 분류체계를 도입한 본초서는 『본초강목』의 목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유경증치본초』¹¹⁸⁾를 제외하면 1,000종 이하의 본초를 수록하였으며, 대부분 常用되는 500~600종 내외의 본초를 수록하고 있다.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본초서들이 기원별 분류체계를 주분류체계로 채택한 본초서들에 비해 수록하고 있는 본초의 평균적인 숫자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학적 분류체계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학적 기준이 난립하게 됨으로 인해,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채택한 본초서 사이에 소통 가능성을 떨어뜨려 표준적인 본초 지식이 정립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사실 醫家들마다 자신의 의학적 주관적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본초분류체계를 수립하게 되므로 분류체계의 항목 간 호환되지 않고 본초 분류 결과도 상이하여 기원별 분류체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의학적 분류체계는 분류체계 내의 기준의 일관성의 문제, 그리고 분류 항목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학적 분류체계 중 다양한 분류 기준이 병렬된 경우나 복합적으로 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병증이나 치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본초서의 분류체계 전체로 볼 때에는 개별 항목들을 묶어주는 관점이 부재하거나 하위 항목 간 중복이나 충돌의 문제가 내재하는 등 논리적인 일관성이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¹¹⁹⁾

또한 의학적 분류체계 구성 항목을 세분화시킴으

117)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p.32. “之所以中藥的功能分類的發展遲於中藥的自然屬性分類, 直到清代方才基本成熟, 是因為對功能的認識屬於對中藥內部特性的深層次認識, 不像自然屬性那樣直觀, 一望而知。”

118) 『유경증치본초』는 총 1877종을 수록했는데, 經外藥類를 제외하고 귀경으로 분류가 이루어진 약물만 헤아리면 1019종이고, 그 중 附品을 제외한 正品은 556종이어서 전체를 수록하되 그 안에서 나름대로 본초 목록의 축소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119)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p.32. “但其分類所存在的多處邏輯缺陷, 如划分標準不統一、子項相容等, 我們應當注意避免。”

로써 구체적인 병리적 상황에 대한 약물의 선택의 폭이 한정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병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미진해도 상황별 用藥을 가능케하여 의학의 문턱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약물의 활용에 관한 인식의 폭을 제한하여 하나의 병증에 대한 약물의 선택을 고착화시키고 나아가 약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경시하는 학술적 경향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¹²⁰⁾ 이러한 문제는 『본초구진』, 『본초이십사품』과 같은 복합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본초서에서 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현대 본초학 교재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갖고 있다.

사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약물과 병증의 관계가 가진 고유한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의학에서 ‘병증’이란 본래부터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현상적 실체이며, 이에 대한 用藥도 각 醫家들의 서로 다른 목적과 관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醫家들마다의 상이한 用藥 경험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본초의 전통 속으로 편입된 모든 약물을 일관된 체계로 배치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일관된 체계로 다룰 수 있는 用藥 경험만을 취사하여 제한적으로 수록할 경우 또한 임상적 유효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요컨대 분류체계의 실용성과 유효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한 체계를 수립하는 질적 과제와 약물에 대한 用藥 경험을 최대한 폭넓게 반영하는 양적 과제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의학적 분류체계의 한계점은 이러한 딜레마를 두고 절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온전한 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한 미완성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단일한 관점에 의해 대량의 用藥 경험을 축적하여 이를 종합할 수 있다면 실용성과 유효성이

높은 분류체계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사회적 환경과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 속에서 단일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따라서 향후 의학적 분류체계의 문제를 보완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완성도 높은 체계를 수립하여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층위의 임상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분류체계의 장단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적재적소에 알맞은 분류체계를 다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현대의 한의학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론적 관점, 국제적 학술 교류를 위한 표준화의 관점 등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²¹⁾

IV. 結論

본 연구에서는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에 담겨있는 본초학의 문제의식을 이해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의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를 가능한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본초분류체계가 가진 의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유형의 본초분류체계를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본초서의 특성과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비교하여 역사적인 맥락에서 각 분류체계가 갖는 학술적 문제의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를 크게 三品 분류체계, 기원별 분류체계, 의학적 분류체계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고 실제로는 기원별 분류체계와 의학적 분류체제로 대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기원별 분류체계의 구성 항목의 변천 과정 및 배

120) 朱姝, 王玉芳. 论历代本草著作之中药分类方法. 辽宁中医药大学学报. 2012. 14(10). p.159. “随之, 中药的功效成为中药学习的一个便捷途径, 使初学者易记易学, 但却亦存在一定的问题, 往往很大程度上局限了初学者的用药思想, 现代医家在应用和研究中药过程中重视功效, 轻视药性也成为比较普遍的现象”

121) 예컨대 한국 한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동의보감』의 精氣神 三寶의 관점은, 본초를 거시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던 기존 三品 분류법의 장점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상의학이 대두됨에 따라 사상의학의 病證藥理도 하나의 본초분류체제로 수용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열 특성을 분석하고, 의학적 분류체계가 주분류방식으로 쓰인 경우와 보완분류방식으로 쓰인 경우를 분석하여 각 분류체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두 분류 체계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기원별 분류체계는 초기 본초서에서부터 출현하여 근대에 출간된 본초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본초서에서 주분류방식으로 채택되어 왔다.
2. 기원별 분류체계는 약물 同定 및 약재 생산의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박물학과의 관련성이 깊다.
3. 기원별 분류체계는 약물의 분류가 쉽고 명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보편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성이 높으며 분류 자체도 매우 안정성이 높고 운영상의 유연성도 크다.
4.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 초기 본초의 대대적인 증보 과정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운용되어 많은 수의 본초에 대해 체계적인 분류를 제공하였다.
5. 의학적 분류체계는 기원별 분류체계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점에 나타났는데, 張元素가 체계적인 약물 이론을 제시하면서 의학적 분류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明清代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학적 분류체계를 적용한 다양한 본초서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6. 의학적 분류체계는 약성 이해 및 병증에 대한 用藥의 과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병증을 이해하기 위한 생리학, 병리학적 이론 및 지식의 심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당한 시간 동안 축적된 약물의 속성에 대한 지식 및 用藥 경험 이 이론체계와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7. 의학적 분류체계에서는 ‘작용’, ‘기미’, ‘병증’, ‘귀경’ 등의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본초를 활용하는 다각도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임상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본초서에 수록될 본초의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시키기도

하였다.

8. 의학적 분류체계는 주관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채택한 본초서 사이에 소통가능성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분류체계 내의 기준의 일관성의 문제, 그리고 분류 항목 간의 정합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의 지식의 범주를 확장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학적 분류체계는 본초학의 임상적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초학의 역사 속에서 두 분류체계는 상호 보완하기도 하고 상충하기도 하면서 본초학의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연구 가운데 가장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그 핵심 내용을 ‘부록’에 실었다. 조사된 자료들은 비록 개별적으로는 대부분 알려진 자료이지만 이들을 모두 모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반 본초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의학이론서 및 종합의서, 한국의서의 범위까지 폭넓게 모았다는 점도 새로운 의의가 있다. 굳이 자료를 본 논고에 수재한 까닭은 본 연구 작업이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현 시점에서 방대한 본초학 지식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인 DB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어서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본초서에서 표층적으로 드러난 본초분류체계의 변천을 위주로 고찰하였는데, 본초분류 내에 소속된 약물들의 분류가 변화하는 통시적 맥락에 대해서는 추적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학적 분류체계의 유형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예시를 분류하는 부분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본초서의 열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학이론 수용의 흔적을 중심으로 의학적 분류체계 수립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그쳤으며, 의학이론의 발전이 의학적 분류체계의 형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살피지 못하였다.

본초분류체계에 대해 통시적 고찰을 시행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현대의 본초분류체계가 지향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0학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2R1G1A1007716).

References

1. 賈所學 原著, 李延夏 補訂. 藥品化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20.
2. 季文達. “諸病通用藥”淵源問題考究. 中华中医药杂志. 2021. 36(10).
3. 顧逢伯. 分部本草妙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4. 高新顏, 張冰, 吳嘉瑞. 《証類本草》“諸病通用藥”來源及藥性特征. 中醫研究. 2008. 21(5).
5. 顧元交. 本草彙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6. 龔廷賢. 對譯 萬病回春. 서울, 法人文化社. 2007.
7. 郭佩蘭 輯. 本草彙.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8. 寇宗奭 著. 本草衍義. 北京, 中國中醫藥科技出版社. 2012.
9. 吉益東洞. 藥徵. 서울, 청흥. 2006.
10. 김신근 편, 황도연 저. 한국의학대계26(醫宗損益). 서울, 여강출판사. 1988.
11. 김신근 편, 황도연, 황필수 저. 한국의학대계 27(證脈方藥合編). 서울, 여강출판사. 1988.
12. 김신근 편. 한국의학대계41(본초정화). 서울,

여강출판사. 1988.

13. 김호철. 한약약리학. 서울, 집문당. 2004.
14. 蘭茂. 滇南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15. 丹波元簡. 藥性提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16. 唐慎微 原著, 艾晟 等 撰. 大觀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2.
17. 唐慎微.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18. 唐宗海. 中西匯通 醫書五種 本草問答. 臺灣, 力行書局有限公司.
19. 屠道和. 本草彙纂.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20. 屠道和. 藥性分類主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21. 陶弘景 原著, 尙志鈞 輯校. 名醫別錄. 北京, 中醫中醫藥版社. 2005
22. 杜文燮. 藥鑿.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23. 蘭茂. 滇南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24. 呂云霞 等. 中药传统分类与命名文化的认知图式分析. 江苏卫生事业管理. 2017. 28(6).
25.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26. 劉文泰. 禦制本草品彙精要.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27. 刘诗聰, 范穎, 梁茂新. 古代本草學治法與功能分類法比較. 中华中医药学刊. 2021. 39(7).
28. 劉若金. 本草述校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29. 凌奭. 本草害利.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2.
30. 李保杰, 柴清軍. 中药的分类探讨. 中国中医药现代远程教育. 2009. 7(4).
31. 李珣. 海藥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32.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 1975.
33. 李中立. 本草原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34. 万德光. 中药三品分类的渊源与沿革. 中国医药学报. 1992. 7(3).
35. 孟詵. 食療本草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9.
36. 繆希雍. 神農本草經疏.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37. 본초학공동교재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 영림사. 2020. p.21.
38. 費伯雄. 食鑿本草.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4.
39. 谢海洲, 冯兴华. 试论《本草纲目》中“百病主治药”. 中医药研究杂志. 1986. 1.
40. 尙志鈞. 歷代中藥文獻精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9.
41. 尙志鈞. 中國本草要籍考.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9.
42. 徐堅 等奉勅撰, 安國 校刊. 初學記. 安氏桂坡館. 153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3. 徐大椿. 徐靈胎醫書全集. 五洲. 五洲出版社. 1981.
44. 徐彥純. 本草發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45. 薛己. 本草約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46. 蘇敬 原著. 尙志鈞 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4.
47. 蘇頌. 本草圖經. 中醫笈成.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s://jicheng.tw/tcm/book/%E6%9C%AC%E8%8D%89%E5%9C%96%E7%B6%93/index.html>
4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49. 孫思邈.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50. 宋咏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51. 神農 原著. 王筠默, 王恒芬 輯著. 神農本草經校證. 서울. 醫聖堂. 1988
52. 신상원. 李東垣의 風藥 活用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 31(4). <https://doi.org/10.14369/jkmc.2018.31.4.001>
53. 야마다 케이지 저, 윤석희·박상영 역. 중국의 학의 기원. 광주. 수퍼노바. 2016.
54. 楊時泰. 本草述鉤元.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09.
55. 嚴潔 等. 得配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56. 冉小攀. 我国古代本草的編纂和藥物分类方法的發展(一). 中藥通報. 1958. 4(1).
57. 葉顯純. 張山雷《本草正義》評注(二). 中醫藥文化. 1992(4). 1992.
58. 倪朱謨. 本草彙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59. 吳鋼 輯. 類經證治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60. 吳其濬. 植物名實圖考 校注. 鄭州. 河南科學技術出版社. 2015.
61. 吳祿. 食品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62. 吳普 原著. 尙志鈞 輯校. 吳氏本草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63. 吳儀洛. 本草從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64. 오재근, 김용진. 『東醫寶鑑』 「湯液篇」의 本草 分類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5). 2010.
65. 오재근, 김용진.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의사학. 2011. 20(1).
66. 오재근. 『본초강목』이 조선 후기 본초학 발전에 미친 영향. 의사학. 21(2). 2012.
67. 오재근. 조선 의서 수재 藥性歌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68. 王介 原著. 鄭金生 整理. 南宋珍稀本草三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69. 王继先原著. 鄭金生 整理. 南宋珍稀本草三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70. 王今觉. 《珍珠囊补遗药性赋》书名研析. 中国中药杂志. 2000. 25(11).
71. 王綸. 本草集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72. 汪昂. 本草備要. 北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73. 汪詡庵. 本草易讀.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4
74. 汪何. 五行與《本草綱目》礦、植物藥分類. 中医学报. 1994. 2.
75. 王好古.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76. 姚瀾. 本草分經.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77. 陸懋修. 本草二十四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78. 李東垣. 熊宗立. 用藥珍珠囊: 點校輯補本/珍珠囊補遺藥性賦: 點校注釋重訂本.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79. 이상협. 『臟腑虛實標本用藥式』에 나타난 藥物 運用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3. 36(1).
<https://doi.org/10.14369/jkmc.2023.36.1.045>
8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81. 李濟馬 著. 량병무, 차광석 譯. 국역한의학대계15(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1999.
82. 李中梓. 本草通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83.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4. 李梴.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2006.
85. 이충구 외 3인 옮김. 이아주소. 서울. 소명출판. 2008.
86. 佚名. 食物本草. 上,下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87. 日華子 集. 尙志鈞 輯釋/韓保昇 撰. 尙志鈞 輯復. 日華子本草/蜀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88. 張介賓. 景岳全書 本草正 新方八陳 古方八陳.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89. 張德裕 輯. 本草正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21.
90. 張璐. 本經逢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91. 張懋辰. 本草便.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92. 張秉成. 本草便讀. 北京. 學苑出版社. 2010.
93. 張山雷. 本草正義.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3.
94. 掌禹錫 等 原著. 尙志鈞 輯復. 嘉祐本草輯復本.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9.
95. 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https://doi.org/10.3742/OPEM.2008.7.5.447>
96.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97. 蔣儀撰. 藥鏡.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98. 張志聰. 本草崇原.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20.
99.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0. 鄭寧. 新刊藥性要略大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101. 趙建一. 论传统本草学对中药功能的分类. 中医研究. 2007. 20(6).
102. 趙學敏.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103. 조학준. ‘十劑’說의 변화·발전 과정.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6(4).
<http://doi.org/10.14369/skmc.2013.26.4>.

- 223
104. 朱橚. 救荒本草校注.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9.
105. 周巖. 本草思辨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106. 朱姝, 王玉芳. 论历代本草著作之中药分类方法. 辽宁中医药大学学报. 2012. 14(10).
<https://doi.org/10.13194/j.ljunivtcm.2012.10.159.zhush.074>
107. 朱震亨 原著, 方廣 編注. 丹溪心法附餘(古庵藥鑿).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08.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21.
109. 陳念祖. 新校注陳修園醫書. 第一輯, 靈素集注節要, 神農本草經讀.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4.
110. 陣士鐸.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11. 陳衍 原著. 鄭金生 整理. 南宋珍稀本草三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112. 陳藏器 原著. 尙志鈞 輯釋.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2.
113. 趨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114. 沈穆. 本草洞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115. 包來發 主編. 李中梓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16. 包誠, 耿世珍 輯錄. 十劑表·本草綱目別名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2.
117. 韩佳瑞 외 5인. 《神農本草經》之三品分类浅析. 中医杂志. 2011. 52(23).
<https://doi.org/10.13288/j.11-2166/r.2011.23.032>
118. 韩悅. 清代综合本草著作的藥物分类方法及編撰体例研究. 上海中医药大学硕士学位论文. 2020.
119.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120. 忽思慧. 飲膳正要. 赤峰.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2002.
121. 黃宮繡. 本草求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1.
122. 皇甫嵩. 本草發明.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123. 黃元御. 長沙藥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124. 論語集註.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1h0301&titleId=C443
125. 陶隱居. 本草經集註. 中醫笈成.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s://jicheng.tw/tcm/book/%E6%9C%AC%E8%8D%89%E7%B6%93%E9%9B%86%E8%A8%BB/index.html>
126. 荀子集解.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605&titleId=C467
127. 荀子集解.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605&titleId=C468
128. 荀子集解.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605&titleId=C476

【付録】역대本草書의 분류체계 목록(본초서 95종, 연대순)([輯]:집고본)

本草書	著者	時代	연대	분류항목	본초수	분류체계
神農本草經 [輯]	神農	後漢以後	-	上藥/中藥/下藥	365 [輯]	삼품분류
吳氏本草經 [輯]	吳普	魏	-	玉石上品·玉石中品·玉石下品/草木上品/草木中品/草木下品/蟲魚上品·蟲魚中品·蟲魚下品/果菜米穀三品(上品·中品·下品)·菜部三品(上品·中品·下品)	441 270 [輯]	기원별분류 + 삼품분류
本草經集註 [輯]	陶弘景	梁	5C	玉石上品·中品·下品/草木(上品·中品·下品)·蟲獸三品(上品·中品·下品)/果菜米穀有名無實(果部藥物(上品·中品·下品)·菜部藥物(上品·中品·下品)·米食部藥物(上品·中品·下品)/有名無實藥物(玉石類·草木類·蟲類))	730 [輯]	기원별분류 + 삼품분류
名醫別錄 [輯]	陶弘景	梁	5C	上品/中品/下品	365 [輯]	삼품분류
千金要方	孫思邈	唐	652	<用藥第六> 玉石部(上·中·下)/草藥部(上·中·下)/木藥部(上·中·下)/獸部(上·中·下)/蟲魚部(上·中·下)/果部(上·下)/菜部(上·中)/米部(上·中) <食治> 菜實/菜蔬/穀米/鳥獸	-	기원별분류 + 삼품분류
新修本草 [輯]	勅撰/蘇敬等	唐	659	玉石部(上品·中品·下品)/草部(上品之上·上品之中·上品之下·中品之上·中品之中·中品之下·下品之上·下品之中·下品之下)/木部(上品·中品·下品)/獸禽部/蟲魚部/果部/菜部/米穀部/有名無用	844(850) [輯]	기원별분류 + 삼품분류
千金翼方	孫思邈	唐	682	<卷之二·三·四> 玉石部(上品·中品·下品)/草部(上品之上·上品之中·上品之下·中品之上·中品之中·中品之下·下品之上·下品之中·下品之下)/木部(上品·中品·下品)/人獸部/蟲魚部/果部/菜部/米穀部	907	기원별분류 + 삼품분류
食療本草	孟詵	唐	713-741	없음	-	없음
本草拾遺 [輯]	陳藏器	唐	739	玉石部/草部/木部/獸禽部/蟲魚部/果菜米部/解紛	692 977 [輯]	기원별분류
海藥本草 [輯]	李珣	前蜀	907-925	玉石部/草部/木部/獸部/蟲魚部/果米部	131 [輯]	기원별분류
日華子本草 [輯]	日華子	吳越	908-923	玉石部(上品·中品·下品)/草部(上品之上·上品之中·上品之下·中品之上·中品之中·中品之下·下品之上·下品之中·下品之下)/木部(上品·中品·下品)/獸部/禽部/魚部/蟲部/果部/菜部/米穀部	618 [輯]	기원별분류
蜀本草 [輯]	韓保昇	後蜀	938-945	玉石部(上品·中品·下品)/草部(上品之上·上品之中·上品之下·中品之上·中品之中·中品之下·下品之上·下品之中·下品之下)/木部(上品·中品·下品)/禽獸部(獸上·禽中·禽下)/蟲魚部(蟲魚上·蟲魚中·蟲魚下)/果部(果上·果中·果下)/菜部(菜上·菜中·菜下)/米部(米上·米中·米下)/有名無用/唐本返	915 [輯]	기원별분류
嘉祐本草 [輯]	掌禹錫等	宋	1057-1060	玉石部(上品·中品·下品)/草部(上品之上·上品之中·上品之下·中品之上·中品之中·中品之下·下品之上·下品之中·下品之下)/木部(上品·中品·下品)/獸禽部(獸上·禽中·禽下)/蟲魚部(蟲魚上·蟲魚中·蟲魚下)/果部(果上·果中·果下)/菜部(菜上·菜中·菜下)/米部(米上·米中·米下)/有名無用	1082	기원별분류 + 삼품분류
本草圖經	蘇頌等	宋	1061	玉石(上品·中品·下品)/獸禽部/蟲魚(上·下)/果部/菜部/米部/本經外草類/本經外木類	780	기원별분류
證類本草 (大觀)	文晟等	宋	1108	玉石部(上品·中品·下品)/草部(上品之上·上品之中·上品之下·中品之上·中品之中·中品之下·下品之上·下品之中·下品之下)/木部(上品·中品·下品)/人獸部(獸上·中·下)/禽獸部(鳥上·中·下)/蟲魚部(蟲上·中·下)/果部三品(上品·中品·下品)/米穀部(上品·中品·下品)/菜部(上品·中品·下品)/本草圖經本經外草類/本草圖經本經外木類 /有名未用(玉石類·草木類·蟲類·唐本返·今返)	1746	기원별분류 + 삼품분류

分部本草抄 用	顧逢白	明	1630	肝部(溫補·寒瀉·性平)·心部(溫補·寒瀉·性平)·脾部(溫補·寒瀉·性平)·肺部(溫補·寒瀉·性平)·兼經部(溫補·寒瀉·性平)·雜藥部(寒瀉·性平)·果部·獸部·禽部·水族部·水部·火部·土部	546	의학전문류(규경·작용·기미) + 기원별분류
本草徵要	李中梓	明	1637	草部/木部/果部/穀部/菜部/金石部/土部/人部/獸部/禽部/蟲魚部	361	기원별분류
藥品化義	賈所學	明	1644	氣藥/血藥/肝藥/心藥/脾藥/肺藥/腎藥/痰藥/火藥/燥藥/風藥/濕藥/寒藥	162	의학전문류(규경·작용·병증)
本草乘雅半 偈	盧之頤	明	1647	없음	355	없음
藥鏡	蔣儀	明	1648	溫部/熱部/平部/寒部	344	의학전문류(기미)
本草通玄	李中梓	明	1655	草部/穀部/木部/菜部/果部/藥部/金石部/土部/人部/獸部/禽部/蟲部/土部	341	기원별분류
本草彙	郭佩蘭	清	1655	藥草部/藥菜部/藥果部/藥木部/藥蟲部/藥鱗部/藥介部/藥獸部/藥人部/藥金石部/藥服器部/藥水部/藥火部/藥土部/補遺(草果·蘭草·熏草·酸漿·黃藥·白藥·屋游·蒸餅·小麥曲·紅曲·墨·無花果·檉柳·麟膠)	485	기원별분류
本草洞詮	沈穆	清	1661	水部/火部/金石部/土部/穀部/果部/菜部/草部上/草部中/草部下/木部/服器部/人部/禽部/獸部/鱗部/介部/蟲部	640	기원별분류
本草彙箋	顧元交	清	1666	草部(山草·芳草·濕草·毒草·水草·石草)/木部(香木·喬木·灌木·草部)/果部(五果·山果·毒果·味果·瓜果·水果)/穀部(麻·黍·稻·稷·粟·菽·豆·海鹽)/菜部(藜·辛·柔滑)/人部(人部)/禽部(禽禽)/蟲部(卵·化·燕/鱗部(龍·蛇·魚·無鱗)/介部(龜·蚌·蛤)/玉石部(金·石·國·石·地·水)/火部(火)/土部(土)	397	기원별분류
本草述	劉若金	清	1691	水部/火部/土部/五金部/石部/齒石部/山草部(上·下)/芳草部(上·下)/濕草部(上·下)/毒草部/蔓草部/水草部/石草部/穀部/菜部/五果部/山果部/果部/果之味部/果之氣部/香木部/喬木部/灌木部	501	기원별분류
本草新編	韓士鐸	清	1691	宮集/商集/角集/徵集/羽集	272	미상
本草易讀	江昂	清	1694	없음	462	-
本經逢源	張璐	清	1695	水部/火部/土部/金石部/齒石部/山草部/芳草部/濕草部/毒草部/蔓草部/水草部/石草部/苔草部/穀部/菜部/果部/水菜部/味部/香木部/高木部/喬木部/樵木部/藥器部/鱗部/龜部/介部/禽部/獸部/人部	784	기원별분류
神農本草經 百種錄	徐大椿	清	1736	上品/中品/下品	100	식품분류
要藥分劑	沈金鏞	清	1737	宣劑上(草部)/宣劑下(木部·穀部·菜部·金石部·水部·禽部·獸部·介部·蟲部)/通劑(草部·木部·穀部·菜部·水部·鱗部·蟲部)/補劑上(草部·木部)/補劑下(穀部·菜部·果部·土部·人部·禽部·獸部·介部·蟲部)/瀉劑上(草部·木部)/瀉劑下(穀部·菜部·果部·石部·人部·禽部·獸部·介部·蟲部)/重劑(木部·金石部·土部)/淨劑(草部·木部·穀部·菜部·果部·石部·土部)/濕劑(草部·木部·菜部·石部)/濕劑(石部·土部·鱗部·介部·蟲部)	420	의학전문류(작용) + 기원별분류
食鑑本草	費伯雄	清	1741	穀/菜/瓜/果/味/鳥/獸/鱗/甲/蟲	162	기원별분류
長沙藥解	黃元御	清	1753	없음	162	-
本草從新	吳儀洛	清	1757	草部(山草類·芳草類·濕草類·毒草類·水草類·石草類·苔類)/木部(香木類·喬木類·樵木類·灌木類·藥木類·水菜類·果部(五果類·山果類·果類·味類·鹹類·水菜類)/菜部(葷辛類·菜類·水菜類·穀部)	720	기원별분류

